

만든 이들:

두리하나 공부방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인권교육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인권’ 선물 받으세요

공부방은 가난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자유롭게 꿈꿀 수 없는 아이들의 소망과, 밤늦게까지 일해야만 하는 어른들의 고단함과 안타까움을 담아서 태어난 공간입니다. 그래서 빈곤과 소외로 인해 상처 입은 아이들이 긍정적인 자기 인식과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지·지원하는 것을 중요한 역할로 삼고 있습니다. 공부방은 아이들을 시혜적인 대상이 아니라 삶의 주체로 인정하고, 가난으로 인해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과 함께 연대와 나눔을 실천해 나가는 ‘인권지킴이’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공부방에서 아이들과 생활하다 보면 ‘인권지킴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일이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경험과 연륜이 하나의 ‘권력’으로 작동하면서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는 선배 교사의 태도에 후배 교사들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까닭으로 체벌과 모욕적인 말로 상처를 주는 교사 앞에서 아이들은 두려움만 키워갑니다. 서로, 더불어 살아가자고 진심을 담아 얘기했건만 뒤돌아서 여전히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 힘이 빠집니다. 주먹을 앞세우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다른 동무를 무시하거나 괴롭히는 아이들 때문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다 그렇지 뭐.”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되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생각처럼 쉽지 않은 문제를 어떻게 하겠어. 그저 교사가 잘 해야지.” 하며 개인의 문제로 넘기면 되는 걸까요?

아이들이 크는 과정에서,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겪는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엔 아이들과 교사들이 받는 상처는 가볍지 않습니다. 뭔가 해결 방법을 찾고 싶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굴러가는 일상에서 교사 혼자 다른 대안을 찾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교사 개인이 노력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고 이것저것 노력도 해 보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노력은 생각만큼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오히려 교사의 마음도 몰라주는 아이들에게 서운함을 느끼거나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는 자신의 모습에 속이 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모든 공부방에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겪고 있는 문제임에도 이런 고민들은 낯두리 삼아 이야기될 뿐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로 공론화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교사들마다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나 교육 방식을 그저 서로의 교육철학이라고 인정해 주거나 월권을 하는 것 같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공부방이, 교사가 똑같은 기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기준이 인권의 눈으로 봤을 때 반인권적이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지금이야말로 혼자 끙끙 머리 싸매고 고민하다 끝내거나, 술자리 안주 삼아 한 판 얘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민들을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민 위에 2005년 3월 두리하나공부방과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인권교육모임, 인권운동사랑방이 모여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저마다 다른 공부방의 기준들과 일상을 인권의 눈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고, 공동으로 지켜야 하는 인권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리하는 작업이 만만치는 않았습니니다. 다들 처음하는 작업이라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헤매기도 하고, 바쁜 일정 속에서 모임 시간을 잡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한발 한발 디더 부족하지만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공부방 통통 인권생활수칙’(아래 ‘통통’)을 만들었는데요. 공부방을 인권으로 ‘통통’하게 살찌우고, 인권의 울림이 북소리처럼 ‘통통’ 퍼져 나가길 바라며 하나하나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물론 공부방 인권에 대한 고민을 ‘통통’ 하나로 말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거나, 인권생활수칙에서 제시한 대로만 하면 모든 인권침해가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기준도 아닙니다. 다만, ‘인권’이라는 말에는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머리에서만 맴돌 뿐 실상 그것을 채우는 구체적인 인권의 기준은 멀게만 느껴질 때, 공부방에서 교육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들이 인권과 충돌할 때, 일상을 인권적으로 바꾸고 싶는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 방향을 알려줄 수 있는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우선 1장에서는 공부방에서 추구하는 가치들에 대한 개념을 정리했는데요. 사전적인 뜻보다는, 이러한 가치들 속에 담아야 할 인권의 원칙들을 중심으로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통통’ 관련해서 올해 3월 워크숍을 했는데, 그 때 나온 이야기들을 모아서 ‘같이 올리는 가치 밥상’을 차려 보았어요. 가치 반찬들을 요리하는 데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어떻게 조리하는 것이 맛있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조리법을 넣었습니다.

2장에는 ‘관계’들 속에서 지켜야 하는 인권의 원칙들을 담아보았는데요. 아이와 아이, 아이와 교사, 교사와 교사의 관계를 통해 인권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그저 듣기에 좋은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까’였습니다. 해서 ‘통통’에서는 이론적인 논의보다는 공부방 아이들과 교사가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구체적인 일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들을 풀어놓으면서 여전히 고민되는 지점이나 이해가 더 필요한 부분을 ‘알쏭달쏭’으로 따로 뽑아 가우똥거려보기도 했고요. 아이들과 읽으면 좋은 책들을 ‘함께 읽어요’에서 간략하게 소개했어요.

인권을 공부방 구석구석에 녹여내려는 작업으로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통통’을 통해, 아이들과 교사들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앞으로 인권 지킴이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말할지 조금이라도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조심스럽게 공부방 문을 두드립니다. 푹푹! ‘인권’ 선물입니다.

2007년 4월

공부방 통통 인권생활수칙 만들기 모임

두리번두리번 통통 보기

‘인권’ 선물 받으세요

1

1 공부방이 추구하는 가치들의 재발견

1-1 가난한 이들의 연대와 나눔	5
1-2 권리주체자로서 자기결정권	7
1-3 함께 참여하고 함께 만드는 민주주의	10
1-4 삶의 노래, 평화	12
1-5 더불어 귀한 생명·생태	14

2 옆으로 흐르는 관계

2-1 아이와 아이

1) 여자·남자, 다르지만 똑같아	16
2) 폭력 썩 물렸거라!	19
3) 위·아래보다 어깨동무가 좋아	22
4) 갈등 해결사는 바로 아이들	24

2-2 아이와 교사

1) 아이들과 함께 만드는 수업	29
2) 수업 참여가 힘든 아이들의 마음 들여다보기	32
3) 나쁜 아이 딱지 떼기	38
4) 맛있고 즐겁게 냅땀 꾀뾀	42
5) 서로를 풍요롭게 하는 말! 말! 말!	46

2-3 교사와 교사

1) 경험과 경력, 나이의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기	47
2) 사람 vs 사람으로 만나기	49
3) 모두 참여하는 왓지컬 공부방	51
4) 학벌 없는 공부방	52

3 도움글 · 자료

3-1 기린언어 배워보실래요?	53
3-2 “아이들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56
3-3 체벌 없이 기를 수 있다	58
3-4 성차별 금지 및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내규	66
3-5 그밖에 ‘함께 읽어요’	68

1 공부방이 추구하는 가치들의 재발견

1-1 가난한 이들의 연대와 나눔

가난한 지역에 모여 사는 아이들과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더불어 대안을 마련하고자 시작한 곳이 바로 공부방입니다. 그래서 공부방의 화두는 언제나 ‘빈곤’이며, 가난 때문에 다양한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과 연대의 손을 맞잡고 나눔을 실천해 가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가난을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게으름이나 일할 의욕의 부족함 탓으로 돌리는 것이 여전히 지배적인 사회에서, 사람들은 공부방을 마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시혜를 베푸는 공간 정도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정말 가난은 개인만의 문제이며, 그 책임 또한 고스란히 개인이 져야 하는 걸까요? 가난은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소득 수준이 낮은 형태이며, 동시에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들이 총체적으로 박탈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손이 갈라져라 계단 청소를 하는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못 배워서 괜찮은 일자리는 꿈꿀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 게을러서, 일할 의욕이 없어서 가난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을 하는데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것을 개인의 책임이라고 해야 하나요? 결국 고도성장을 통해 일정정도의 사회적인 부가 생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빈곤의 문제는 소득 불균형이라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합니다. 빈곤은 사람들이 일할 의욕이 없거나 게을러서가 아니라 일한 만큼의 대가조차 받지 못하는 지금의 노동시장 구조 탓이며,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 탓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경제적인 박탈이 사람들에게 의식주에 대한 걱정뿐 아니라 가난으로 인한 사회적인 배제와 소외 등 차별을 경험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뼈뺀 시선 때문에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친구들을 마음 놓고 초대할 수도 없습니다. ‘생존’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가난은 어른들에게 고달픔을 안겨줄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슬픔과 외로움을 겪게 합니다. 어른들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다른 것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난 때문에 겪게 되는 불평등함과 부당함을 내면화해 빈곤의 문제를 개인이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공부방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의 차별적인 시선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가난한 자의 편에서 함께 연대하고 나누는 것을 실천해 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난한 이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하며, 나아가 구조의 모순에 대해 저항할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부방은 가

난한 이들이 서로 희망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되며, 대안적인 삶을 실천하고 만들어가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갈수록 산동네 등 가난한 이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해체되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연대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다보니 공부방은 자꾸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던 일들도 이제는 공부방에 아이들을 보내는 가정 정도만 참여하고, 지역 행사가 아니라 공부방 행사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주민들이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일에 대해서는 함께 연대하거나 나눔을 실천하려는 모습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부방도 스스로 서비스 센터의 역할만을 자임하곤 하죠.

연대와 나눔이 꼭 현장에 가서 그들과 손을 맞잡고 함께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녀의 학교 공부만을 위해 공부방을 찾지 않도록, 자신의 아이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세술을 좇지 않도록, 공부방이 연대와 나눔의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또한 연대와 나눔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손을 내밀고, 나누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공부방과 함께하는 경험을 통해 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적으로 공부방을 운영하고, 그 안에서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지역 어른들과 아이들, 그리고 교사들은 참 연대와 나눔을 맞볼 것입니다.



같이 올리는 가치 밤상



가치 반찬	공동체	가난	자력과 더불어
이것저것 재료	다양함, 믿음, 배려, 존중, 열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마음, 다른 가치로 행복 느끼기, 다른 것에 대한 배려	우리 동네 사람들, 다른 동네 사람들, 자주 만남, 끈끈한 정, 연대의식, 관심
자글보글 조리	☆ 서로 다른 개성이 모여 어우러져 공존·상생해요.	☆ 살아가는 데 (진짜)필요한 만큼만 ☆ 작고 하찮아 보이는 것들이 나를 살려주잖아. ☆ 일상적으로 깨어 있기	① 관심을 씻어 놓는다. ② 우리 동네 사람과 다른 동네사람들에 관심을 넣고 묶는다. ③ 자주 만남을 총총 썰어 ②에 넣어 함께 묶는다. ④ 불을 끄고 ③볶은 것에 연대의식을 넣고 버무린다. ⑤ 그릇에 담고 끈끈한 정으로 꾸민다.
잠깐!	✓ 각각의 맛과 향을 잃지 않도록 따로따로 조리해요. ✓ 희생하지 않기 ✓ 개성 무시하지 않기 ✓ 차이와 다름 인정하기	✓ 부자의 반대말 아니라는 거! ✓ 아무리 자발적인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당위 때문에 자기를 과롭히지 않기 ✓ 타인을 비난하지 않기	✓ 먹을수록 몸에 좋아요. ✓ 끈끈한 정, 관심 등 재료가 식으면 태운다.

1-2 권리주체자로서 자기결정권

“넌 몰라도 돼.”

“다 당신 잘되라고 하는 얘기니 하라는 대로 해!!!”

가정이나 학교, 직장에서, 또는 자신과 관계 맺고 있는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리 나를 위한 결정이라고 해도 자신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죠. 이런 경우는 공부방에서도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특히 아이들과 관련된 일을 결정할 때에, 어리다거나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며 의사소통과 결정 과정에서 아이들을 배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위와 같이 무시하고 명령하는 식의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비슷한 말이 묻어나오거나, 또는 표현하지는 않지만 ‘아이들이니까, 어리니까, 혹은 미숙한데’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아이들을 어른들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야 하고,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존재로 바라보게 합니다.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 소통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는 아이들이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물론이고, 의사소통을 하기 힘들거나, 충분히 성숙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라도, 그리고 특정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곧, 자신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은 어른이 아이에게 부여하거나, 허락해주는 것이 아니라 권리주체자로서 당연히 가져야 하는 권리인 것입니다. 또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여 결정한다는 것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 생각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 과정에도 스스로 참여하고 실천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주체성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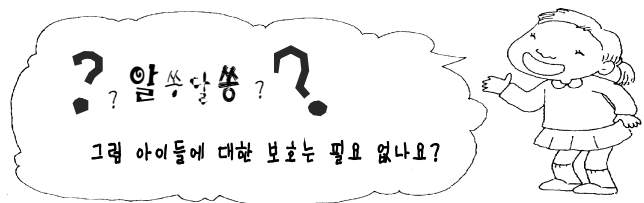
하지만 아이들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은 또 다른 갈등과 만나게 됩니다. 아이들이 선택 과정에 참여해 결정을 내렸다 할지라도 ‘과연 아이의 선택이 제대로 된 결정인지’ 끊임없이 걱정됩니다. 그러다보니 또 다시 아이들에게 선택이나 결정을 강요하게 되고, 나중에는 교사나 어른들이 원하는 대로 아이들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아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거나, 누군가 내린 결정에 대해 다른 의견조차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막고 일방적으로 문제를 처리하기보다는 왜 그것을 선택했

는지,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소통 과정을 통해 아이가 또는 교사가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나 선택을,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신과 관련된 일임에도 아이들이 소통 과정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거나,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도 수동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나 배움 등에 대해 무기력하고 적극적이지 않을 때도 있지요. 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버릇없는 말대꾸가 되고, 어른들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되고, 학교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삶에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곤 무기력과 위계뿐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결정권을 누려보지 못한 아이들한테 자기 의견을 말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한 순간에 달라질 수는 없겠지요. 물론 이러한 상황은 지금의 어른들이 아이들이었을 때도 마찬가지여서 아이들을 보면 불안하고, 걱정이 먼저 앞서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해서 아이들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아이들의 태도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의견을 표현하고, 그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 실천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무기력과 위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실패를 하기도 하고, 좌절도 경험하겠지요. 그럴 때 아이들이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도록, 자기결정권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도록 공부방이 지지와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비난하고 꾸짖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아이가 좀더 나은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격려와 존중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권리주체자로서 자기결정권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으며, 더불어 교사와 어른들 또한 불안과 강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자기결정권을 이야기하다보면 빠지지 않고 꼭 따라다니는 물음이 바로 ‘보호’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자신과 관련된 일을 결정하고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경우, 사람들은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아이건 어른이건 마찬가지죠. 따라서 아이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예방책을 만들고, 어려움에 처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또한 그것이 미흡할 경우에는 제대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내가 너를 보호해 주는 만

“네의 권리를 제한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밤거리가 위험하다고 통행시간을 제한하거나 가스폭발의 위험이 있으니 모든 집에서 가스렌즈를 쓰지 못하도록 한다면 아마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너무 극단적인 예라고요? 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보호를 얘기할 때, 이런 논리는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정당화됩니다.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 곧 권리를 제한해도 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보호와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보호’라는 말 자체를 사용해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사실 지하철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았던 건, 그 동안 비장애인과의 계단을 이용할 수 있을 만큼 건장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구성원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던 것이며, 그 동안 이들에 대한 권리를 제한해 온 것이기 때문에 ‘보호’ 차원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조치들을 취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이들에 대한 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수저를 찾아보기 힘든 음식점, 아이들 변기를 설치해 놓고 문조차 닫지 않은 화장실, 보폭이 넓은 사람들을 위한 횡단보도 시간 등등 지금까지 어른들을 중심으로 돌아간 사회에서 아이들의 존재는 느끼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지금 필요한 건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는 뉘그러한 이야기 가 아니라 어른 중심의 사회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아이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닐까요.



같이 올리는 가치 밤상



가치 반찬	차유	자치
이것저것 재료	다양함, 믿음, 배려, 존중, 열의	믿음, 동기
자글보글 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부방에서나 예전에 받은 생채기를 서로 보듬어 주기도 하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마음의 힘도 카울 수 있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 모임을 둘 수 있어요. 자치 모임의 역할을 미리 제한하거나, 부분적인 것으로만 두지 말고 사업이나 활동을 계획할 때 처음부터 함께 할 수 있어야 해요.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어요. 다양한 경험과 실패, 성과를 통해 더 잘 할 수 있어요.
잠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급하지 말 것! 민고 가타라기! 무조건 의존하지 않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임이 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고려하기 실무교사들이 주도하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역할 잘 나누기

1-3 함께 참여하고 함께 만드는 민주주의

‘민주주의’ 하면 마치 정치나 정부에서만 하는 이야기 같아 멀게만 느껴지나요? 어떤 사람은 학창 시절 사회 교과서에서 봤던 민주주의를, 또 다른 사람은 독재 타도와 함께 외쳤던 민주주의를 가장 먼저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의 사전적인 뜻은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나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정치제도로서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어야 하는데요. 바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다들 아시겠지만, 초기 아테네에서 시민권은 돈과 권력이 있는 남성에게만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그게 무슨 민주주의야?’ 하고 생각하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나 보장된 것이 아니라 마치 특권처럼 일부에게만 주어졌던 것을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중요한 운영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공부방에서는 어떤가요? 혹시 돈과 권력이 있는 남성과, 여성, 노예, 외국인 거주자, 아이들을 구분해 시민권을 부여했던 옛 아테네의 모습이 남아 있지는 않나요? 아이들은 판단할 능력이 없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여전히 최종 결정은 교사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특히 어른들은 보호와 양육의 관점으로만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참여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부방 안에서 모든 결정을 아이들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은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이런 과정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여가 형식적으로만 주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이나 통로를 두어 참여자들의 권한을 충분히 보장해야 하며,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논의 과정 또한 자유롭고 공정한 분위기여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아이들과 자원교사들은 ‘거수기’가 아닌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주체로 설 수 있습니다.

선생님 : 이번 체육대회에서 뭘 할지 한번 얘기해 볼까?

남 1 : 축구 언제? 다 같이 하려면 축구 정도는 돼야지?

남 2 : 그래! 여럿이 하기에 축구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

여 1 : 난 축구 싫어. 뛰어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고, ... 여자들은 하기 힘들단 말야.

남 2 : 야, 이럴 때 같이 하는 거지. 여자들은 그래서 안 돼.

남 1 : 너 정말 까다롭다. 그냥 같이 노는 데 의의가 있는 거지, 잘 하면 어떻고 못 하면 어때?

여 1 : 그럼 그냥 너희들끼리 해. 난 축구처럼 격렬한 운동을 할 자신이 없어.

남 1 : 다 같이 하는 건데 너 하기 싫다고 꼭 그렇게 니 맘대로 해야겠어.

(분위기 험악..., 시간은 흐르고)

선생님 : 이렇게 얘기만 하다가는 정말 결정을 못 내리겠는 걸.

서로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은데, 이제는 다수결로 결정을 해 보자.

자! 그럼, 체육대회를 앞두고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보여준 위의 사례는 민주적인가요?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수결로 정하는 건 그나마 민주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참 쉽지 않은 문제지요. 많은 경우,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서로 타협하며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니 민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 개개인이나 집단이 가진 권력이 모두 똑같다면 논의의 과정을 거치는 것만으로도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구성원 개개인이나 공동체 안에 형성된 집단 간의 힘이 다르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위의 상황을 들어 이야기 해볼까요. 실제 축구는 건장한 남성들을 중심으로 놀이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성들이나 몸이 약한 친구들은 축구 놀이에서 소외되기 쉽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며 축구 놀이를 할 경우는 더더욱 그렇겠죠. 따라서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동체 안에서 소수자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면 이 과정을 민주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 논의를 하다보면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 힘의 관계가 작동해 소수자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지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우리의 일상에서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소수자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자칫 힘의 논리로 빠질 수 있는 다수결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이 올리는 가치 망상



가치 반찬	민주주의 꽃밭
이것저것 재료	주체성, 자기 표현, 키 가늘며 듣기, 소수 존중, 가타림, 비정기·점기 소통마당
자글보글 조리	① 주체성을 채 썰어 자기표현 가루를 묻힌다. ② 묻힌 재료를 가타림에 튀겨지며, 잘 튀겨지는지 키 가늘며 듣는다. ③ 튀긴 것을 '소수존중 소스'에 찍어 먹는 센스!
잠깐!	✓ '소수존중 소스'를 안 찍어 먹으면 혀를 단다! ✓ '자기 표현 가루'를 묻히지 않고 튀기면 타서 맛이 없다.

1-4 삶의 노래, 평화

우리가 지향하는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한 가지로 ‘평화’를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화’란 무엇일까요? 평화는, 전쟁이 진행되지 않는 상태뿐 아니라 일상이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툼이 없고, 나와 우리가 다 함께 평등한 상태, 누군가나 어떤 무엇이 무섭고 두려워서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정답고 따뜻하게 관계 맺고 있는 상태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 ★ ○○공부방은 아이들 떠드는 소리만 빼면, 늘 별다른 문제 없이 조용한 편입니다. 가끔씩 동무들 사이에 싸움이 불기도 하지만, 어느새 화해를 하든지 시비가 가려져 조용해지지요.
- ★ ○○공부방엔 규율과 질서가 있어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선생님을 어떻게 공손히 대해야 하는지, 선후배 사이에는 어떤 질서가 있어야 하는지 늘 엄격하게 가르쳐 주지요.
- ★ 나이가 많은 언니, 형들은 동생들 생활에도 책임을 가져요. “싸우지 말자.”는 규칙을 어기고 싸우는 아이들에게 따끔히 얘기해 화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장난이 심한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어 말을 듣도록 합니다.

○○공부방은 조용하고 싸움이 없는 공부방입니다. 그럼 “○○공부방은 평화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싸움을 비롯한 어떤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종종 평화롭다고 여기거나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부방 이야기를 조금 더 찬찬히 들여다 볼 때 깨운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싸움은 별로 없지만 서로 ‘진정 화목한 것’인지, 평화롭다면 ‘진정 평화로운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면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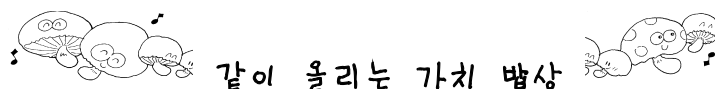
만약 ○○공부방의 규율이 교사가 정하고 아이들은 따르도록 요구된 것이라면, 아이들의 공손함이 교사와 아이들 사이 돈독한 관계와 믿음을 바탕으로 우러난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래야 할 것으로 훈련된 결과라면, 공부방 사람들 사이의 질서가 부당하게 느껴지는 어떤 구성원이 있다면, ‘다 함께 평등한 상태, 서로 정답고 따뜻하게 관계 맺고 있는 상태’라 하긴 힘들 것입니다. 또한 싸운 아이들이 서로 마음을 풀어 화해한 것이 아니라 화해를 독촉하는 선배가 무서워 그렇게 했다면, 그 아이들 마음엔 불만이 생기고 스스로 평화롭지 못하겠지요. 결국 나이와 지위, 경험이나 성, 힘 등을 이용해 누군가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억압하고 있다면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평화롭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평화로워 보일지라도 권위적인 선생님과 선배들의 기운에 눌려 자기 의사를 마음껏 표현해 보지 못하고 순응하는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있거나 저보다 어린 아이들을 만날 때 그 눌려 있

던 기운을 거칠게 뺏쳐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부방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보니 평화를 노래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본의 논리로 돌아가는 사회 곳곳에서 파리를 틀고 있는 폭력성 때문이지요. 다른 어떤 가치보다 ‘돈’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일어나는 폭력은 정말 끔찍합니다. 집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사회에서 죽어라 일해도 내 집 하나 가질 수 없어 거리에 나앉은 사람들의 절박함은 너무나 쉽게 외면당합니다. 전정수혜기업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아이들과 여성, 사회적 약자들의 생명을 순식간에 앗아가는 끔찍한 전쟁은 ‘평화’라는 얼토당토않은 이름을 내걸고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돈 잘 버는 일을 곧바로 좋은 직업으로 평가하며,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친구도 동지도 없으며 오로지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열변을 토합니다. 경쟁 과정에서 좌절하고 상처받는 사람들, 서로 돕고 배려하는 대신 늘 남보다 내가 낮고자 하여 불안하고 삭막한 우리 사회 분위기, 가진 이와 못 가진 이 사이의 엄청난 위화감...

이러한 우리 사회의 모순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아이들의 삶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돈 중심의 사회에서 아이들은 가치관의 혼란을 겪으며, 날마다 경쟁 속에 불안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자본의 논리에 따른 불평등 구조와 차별로 아이들은 아이들 자리에서 고통을 받기도 하지요. 이렇듯 평온하고 화목한 삶을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돈 중심의 세계’에서 우리는 강한 폭력성을 느끼며, 아이들은 알게 모르게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공부방에서 부르는 평화의 노래는 공부방이라는 공간을 넘어 아이들의 일상에 울려 퍼지는 삶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공부방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나이나 경험, 성이나 힘 등에 따른 위계질서와 폭력에 대해 아이들과 교사들이 용기 있게 거부하며, 평화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평화로운 삶은 가장 가까이 나부터 시작해 더불어 사는 모든 생명들이 자기 내면에서 고요하며, 정답과 따뜻한 관계를 맺어 갈 때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루고 사는 여러 사회가 참다운 가치를 추구하며 정의롭고, 민주적인 구조를 이루어 갈 때, 그리고 이 각각의 것들이 서로 뒷받침하며 함께 갈 때 비로소 실현되는 것입니다.



가치 반찬	평화
이것저것 재료	다름 존중, 비폭력, 저항, 대화, 믿음, 성찰
자글보글 조리	✧ 모든 재료를 함께 넣고 뉘인 뒤, 여러 가지 맛을 느끼며 맛있게 먹는다.
잠깐!	✓ 용기국과 먹어야 제 맛!

1-5 더불어 귀한 생명·생태

지구에 함께 사는 모든 존재는 서로 소중하고 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가 다른 존재들의 삶을 지속가능한 삶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둘레에서 서로 소중하고 귀하게 대하는 모습보다는 서로 다치게 하거나 죽이며 살아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단지 돈이 된다고 사람들에게 해로운 먹을거리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가난하다는 까닭으로 차별을 하는 사회에서,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연 파괴도 서슴지 않는 모습에서, 생태와 인류 생존의 위협을 느끼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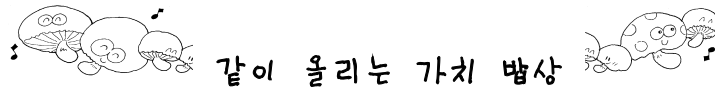
그렇다면 생명 존중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할까요? 생명 즉, 생명적 삶이란 모든 존재에게 부여된 자존감을 회복, 성장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다시 말해, 공부방 아이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의 대상이 아닌 ‘나’라는 존재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에게 주어진 생명이 얼마나 위대한지 스스로 깨닫고 그 삶을 아름답게 가꿀 줄 알 때 생명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또 생명과 생태적인 삶은 죽지 않은 상태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발전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나아가 인간 중심의 삶을 벗어나 다른 모든 생명체의 존엄함을 느끼고, 자연과의 공존을 꿈꾸는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공부방 아이들이 처한 현실을 볼 때, 아이들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맛보기도 전에, 자신을 부정하거나 스스로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마음과 생각들을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체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눅이 들어 있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방식을 모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불량식품을 많이 먹고, 자극적인 패스트푸드를 좋아합니다. 또 자신의 몸을 잘 씻지 않거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다니지 못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먹을거리와 청결에 대해 잘 챙겨주지 못하는 가정의 환경도 큰 까닭이 될 수 있지만, 아이들 스스로 자신을 살필 수 있는 힘을 가지도록 공부방에서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뿐 아니라 아이들의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위해 주거 · 의료 · 교육 등의 문제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레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존경심이 우러납니다. 더 나아가 자연에 대한 소중함과, 모든 생명은 유기적 관계망으로 연결되어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큰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부방 일상

생활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것부터, 휴지보다 걸레를 사용하는 것, 전기를 아껴 쓰는 것, 장터에서 서로 필요한 물건들을 바꿔 쓰는 것, 불량식품을 사 먹지 않는 것, 친구와 싸웠을 때 잘 풀어내는 것,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자신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잘 표현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일들이 생명적 삶의 시작이며, 나 자신을 건강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가치 반찬	생명 존중	살림
이것저것 재료	우주, 나, 다른 사람, 지렁이, 흙, 자기애, 살림, 땀, 시간	나, 너, 흙, 똥, 물, 사랑, 씨앗, 생명, 가운, 문화, 사회
자글보글 조리	① 각 재료의 소중함을 안다. ② 우주에 자기애와 살림을 넣고 은근한 불에 조리한다. ③ 조리 음식에 땀으로 간을 한다. ④ 푹 익으면 그릇에 담아낸다.	✧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이 온전히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잠깐!	✓ 너무 센 불에 조리면 악취가 난다. ✓ 충분한 땀 ✓ 싹싹 긁어 먹는다.	✓ 부엌살림만이 아니잖아요. 살고 싶은 마음들을 자나치지 말아요.

2 열의준호는 관계

1-1 아이와 아이

1) 여자 · 남자, 다르지만 똑같아

#1

“○○야!! 이거 무거우니까 네가 와서 들어줘.”

“네가 충분히 들 수 있잖아.”

“이런 거는 남자가 하는 일이야.”

#2

“애들아 축구하자.”

“그래.”

“나도 할래.”

평소에 축구를 좋아하던 ○○(여)가 좋아하면서 들떠 있다.

“야!! 넌 안 돼. 축구는 원래 남자들끼리 해야 재밌단 말야. 그리고 넌 잘하지도 못하잖아.”

“싫어, 못해도 하고 싶단 말이야. 하고 싶은데 남자 · 여자가 어디 있어!!!!!!”

일상에서 자주 보게 되는 풍경 중 하나죠. 바로 정해진 성역할의 모습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가르는 것뿐 아니라 여성의 역할을 남성의 역할보다 하찮고 중요하지 않은 일, 보조적인 일들로 생각하거나, 남성을 여성보다 우월한 존재로 보면서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차별로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남자라서 슬퍼도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아이, 축구가 좋아도 여자라서 응원만 해야 하는 아이. 바로 우리 공부방 아이들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자라나는 과정에서 아이들 또한 이러한 성차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여자가’로 시작되는 말은 어느새 아이들 사이에서도 익숙한 대화가 되고, 고정적인 성역할은 여자와 남자가 생물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차별적인 사회의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 성 평등한 세상을 꿈꾸기에 아이들의 경험과 상상력은 빈곤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어려서부터 삶의 자리에서 성 평등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 평등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성차별적인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고민해 볼까요.

▶ 통통 인권생활수칙 1

♀ “여자가”, “남자가”라는 말 대신 이름 부르기

아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차별적인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자가”, “남자가”로 시작하는 말입니다. 별것 아닌 말 같지만 이런 말들을 통해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정해진 성역할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 동무가 여자라서 눈물이 많은 것이 아니라, 또 남자라서 축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개인적인 특성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여자라서 눈물이 많구나.”가 아니라 “○○는 참 눈물이 많다.”고 얘기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 “여자가”, “남자가”로 시작하는 말은 하지 않기로 해요. 작은 실천이지만 상대방을 억압하고 가두는 말들을 버림으로, 무겁게 억누르고 있던 차별적인 관계가 한층 자유롭고 평등해질 거예요.

♀♀ ‘남자 일’, ‘여자 일’이 어딴어? 어딴어?

공부방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면 역할을 나누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예를 들어 공부방 후원의 밤을 할 경우, 다양한 역할을 공부방 성원들이 나눠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기존의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일을 나눌 때에도 남자 일과 여자 일로 나누는 경우가 많지요. 무조건 여자, 남자로 나눠서 하지 말고, 역할을 나눠 맡기에 앞서 아이들 각자 어떤 역할을 잘 해 낼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일을 할 때 만족스러울 것 같은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럴 경우에도 기존의 정해진 역할 중심으로 아이들이 잘하는 일이나 만족도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럴 때에는 전에 해 보지 않은 역할들을 중심으로 일을 배분하자고 제안하거나, 남자건 여자건 누구나 살아가면서 반드시 배우고 알아야 하는 일이 있음을 설명하고 역할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성 평등 교육¹⁾, 꼭 필요해요

생활 속에서 성 평등 교육이 이루어지면 더없이 좋겠지만, 우리 생활 곳곳에 오히려 성차별이 너무나 일상화해 있어서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새 아이들도 성차별적인 상황에 쉽게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 과정에 성 평등 교육을 포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데요.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지식만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평등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교육을 기획하는

1) 주로 남녀평등이나 양성평등 교육이라고 하죠. 하지만 성을 여와 남으로만 나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전환자의 경우, 자신을 여성이나 남성 어느 한 쪽으로 규정할 수 없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칫 양성이나 남녀라는 용어는 어느 한 쪽의 성으로 편입되지 않기를 바라는 이들을 이분법적인 성의 구도에 가두어 버리기도 합니다. 물론 여전히 성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그리고 꼭 규정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기는 합니다. 지금 당장 그 답을 찾지는 못하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신을 여·남의 어느 한 쪽 성으로 규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이들을 배제시키지 않을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것이 중요합니다. 공부방 자체적으로 교육이 어렵다면 여성인권 단체-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의전화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여성인권 단체들이 개최하는 워크숍에 참여하는 것도 좋겠죠.



함께 읽어요

성 고정관념 깨기

<돼지책>/ 앤서니 브라운 글 · 그림/ 웅진닷컴/ 초2~

❖ 돼지에 대한 이야기냐고요? 아~니요. '아주 중요한 회사'에 다니는 피곶 씨와 '아주 중요한 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 그리고 피곶 씨의 부인이자 두 아이의 엄마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혼자 집안일을 도맡아하며 힘들어하던 엄마는 마침내 집을 나가 버리고, 피곶 씨와 아이들 모습이 조금씩 이상하게 바뀌어 가는군요.

<종이붕지 공주>/ 로버트 문치 글 · 마이클 미철크 그림/ 비룡소/ 초2~

❖ 험난한 과정을 거치며 종이붕지를 치마 삼아 뒤집어쓰고 위험에 처한 왕자를 구하러 간 공주. 하지만 왕자는 자기를 구해 준 공주에게 고마워하지 않는군요. 오히려 깨끗한 옷을 입고 다시 오라며 큰소리치는 왕자 앞에서, 미련 없이 ছ 돌아서 새 길을 가는 공주의 뒷모습이 통쾌합니다.

<치마를 입어야지, 아멜리아 볼루머>/ 샌너 코너 글 · 채슬리 맥라렌 그림/ 아이세움/ 초4~

❖ 아멜리아 볼루머는 19세기 미국에 실제로 살았던 여성이에요. 여성들의 활동을 힘들게 하는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드레스를 반대하고, 신문을 만들어 여성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애쓴 볼루머 이야기를 발랄한 그림들과 함께 들려줍니다.

<반쪽이네 딸, 학교에 가다!>/ 최정현 글 · 그림(만화)/ 김영사/ 청소년

❖ 평등부부 반쪽이네가 딸 하예린을 초등학교에 보내며 겪는 일들을 반쪽이 아빠가 만화로 그려요. 남성 위주, 어른 중심의 사회에 새로운 시각과 실천 모습을 던져 줍니다.

성폭력

<이럴 땐 싫다고 말해요>/ 마리 프랑스 보트 글 · 그림/ 문학동네/ 초1~

❖ 우리는 필요한 경우, "싫어요!" 하고 당당히 말할 줄 알아야 하지요. 어른들에게 늘 예의 바르기를 요구당하는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더군다나 나쁜 어른들한테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일이지요.

<슬픈 란돌렌>/ 카트린 마이어 글 · 아네테 블라이 그림/ 문학동네어린이/ 초1~

❖ 브리트는 엄마의 애인에게 아프고 싫은 일을 당했어요. 브리트의 인형 친구 란돌렌은 "넌 동물 인형이 아냐. 그 비밀은 너를 아프게 해!" 하고 말해 주며, 브리트가 그 일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나탈리!>/ 질 티보 글 · 마리 클로드 파브로 그림/ 어린이작가정신/ 초3~

❖ 평범한 여자 아이 나탈리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힘든 비밀을 가지게 됩니다. '뽀빠디 마룻바닥을 뽀뽀거리게 하는' 아저씨는, 이 비밀을 말하면 아무도 나탈리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고, 감옥에 가게 될 거라고 말해요. 하지만 정말은, 나탈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

<유치원과 유진>/ 이금이 글/ 푸른책들/ 청소년

❖ 유치원을 함께 다니 '큰 유진'과 '작은 유진'이 어린 시절의 성폭력 상처를 아물리고 이겨내는 이야기랍니다. 상처를 대하는 방식이 아주 다른 두 유진을 보며 우레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지요. 상처는 털어두면 덧나기만 할 뿐, 바람 쏘이고, 햇볕 쬔여야 나무용이처럼 단단하게 여문다는 것들요.

2) 폭력, 썩 물렸거라!

교사 : 너희들 왜 싸운 거야?

△△(동무 1) : ○○가 먼저 동똥하다고, 돼지라고 놀리잖아요.

○○(동무 2) : 그냥 장난이었는데... .

교사 : (동무 2를 보며) 아무리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친구를 놀리는 건 옳지 못한 행동이지?

(동무 1을 보며) 그런데, 그렇다고 친구를 때리면 어저니?

△△ : 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 놀리잖아요. 재가 먼저 잘못 해서 그런 거데... .

어른들도 우리가 잘못하면 때리잖아요.

어른들이 때리는 것처럼 동무가 잘못을 해서 때렸다는 아이의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난감할 뿐입니다. “폭력은 나쁜 거야. 그러니까 쓰지 말아야지.” 하는 말은 아이들이 점수를 받기 위해 택해야 하는 정답일 뿐 현실에서는 진실이 아닙니다.

폭력은 나쁘다면서 아이를 훈육할 때에는 아무렇지 않게 체벌을 가하는 어른들,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면 양육강식의 정글처럼 약자를 짓밟고 일어서는 사회에서 아이들은 너무나 쉽게 폭력을 습득합니다. 코미디 프로 등 대중매체에서 보이는 모습 또한 아이들에게 폭력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합니다. 상대를 때리는 행위, 외모를 가지고 비하하는 표현의 폭력성은 ‘웃음’ 뒤로 가려집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아이들 사이에서 폭력은 가장 익숙하고, 손쉬운 해결방법이 됩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갈등이 생기면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하고, 폭력을 가한 아이들은 아무런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재미로, 놀이로 폭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맞아야죠.” 하는 식으로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이렇듯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어른들의 비열함을, 사회의 부조리를 그대로 닮고 있습니다. 결국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공부방 내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나 사회에서 폭력을 정당화 시키고 있는 규칙이나 규율은 없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폭력은 나쁘다’라는 말이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외칠 수 있겠죠? “폭력, 썩 물렸거라!”

함 통통 인권생활수칙 2

8 장난이 아니라 폭력이래두

서로 간에 아무리 장난이라 하더라도 몸과 마음에 고통을 주는 행위나 말은 결국 불쾌감과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감정이 쌓이고 관계도 악화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를 스스로 또는 서로 간에 멈추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치회의를 통해, 상황을 멈추게 할 때 필요한 말들이나 행동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장난으로 행하는 것들이 다른 한 쪽에게 언어적·환경적·물리적 폭력이라 느껴진다면 상대방의 행동을 멈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서로 약속한 단어-그만, 멈춰 등등-를 외칠 경우 상대방은 지금까지의 행위를 중단하고, 폭력이라고 느낀 동무가 그때의 느낌이나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말하거나 부탁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매우 인위적이지만 이런 규칙을 통해 아이들은 폭력적인 상황을 그저 넘기거나 참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상황을 직면할 수 있게 됩니다.

११ 폭력에 저항하는 아이들의 힘 키우기

아이들이 비폭력적으로 대화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저 폭력은 나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왜 갈등상황을 폭력으로 해결하려는지, 함께 힘을 모으면 폭력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데 왜 방관자로 남아 있는지, 평화적인 갈등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폭력의 문제를 살피고, 비폭력적으로 말하고 듣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비폭력대화²⁾, 인권교육 등을 기획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교육으로 아이들이 변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평화적인 방식을 알 때와 아예 모를 때의 변화 가능성이란 분명이 다르겠죠. 그 가능성을 가지고 아이들 사이에 평화의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१११ 처벌을 넘어 서로의 마음 보기

때로는 아이들 사이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 아이들 자치 회의를 거쳐 해결 방법을 결정하기도 하죠. 주로 청소를 한다거나,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으로 처벌을 대신합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을 하기 전에³⁾ 폭력을 행한 아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서로 헤아려 주는 마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도 추스르기 힘들고, 그런 방식으로밖에 표현할 줄 모르는 아이일 수도 있으며, 더 배려 받고 싶고,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은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폭력행위를 정당화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폭력이라는 방법을 쓰면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살피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그런 해결 방법이 상처를 받은 동무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었는지, 정말 아이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혹시 그 방식이 폭력을 행한 아이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되지 않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한국비폭력대화센터(<http://www.krncv.org>),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http://www.peacecr.org>) 등에서 비폭력대화에 대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비폭력대화에 대해서는 도움글·자료 3-1에 평화인권연대 아침 활동가가 정리한 글을 실었습니다.

3) 아이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통통 인권생활수칙 7’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아이들 사이 관계 맺기

함께 읽어요

<너, 그거 이리 내 봐!>/티에르 르넵 글 · 베로니크 보아리 그림/ 비룡소/ 초2~

☆ 클레망은 간식으로 싸 간 정보초코빵을 날마다 힘이 센 암델에게 빼앗기며 갈등하지요. 친구의 도움으로 더는 빵을 빼앗기지 않게 되었을 때, 굶는 암델을 보며 스스로 빵을 나눠주는 클레망. 암델도 마침내 무언가 나눌 것을 찾아내는군요.

<평화는 어디에서 오나요>/ 구드룬 파우제방 글 · 민애수 그림/ 웅진주니어/ 초5~

☆ 어린이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유쾌하고 따뜻하게 그려져 있답니다. ‘습관 사진’, ‘기가 막힌 생각’, ‘더러움 인도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지?’ 등 재미있는 평화 이야기들이 들어 있어요.

<양파의 왓다 일기>/ 문선 글 · 박철민 그림/ 파랑새어린이/ 초4~

☆ 공부든 운동이든 못하는 게 없는 인기 많은 친구 양미희와, 미희와 함께 물려다니는 ‘양파’가 마음에 안 드는 같은 반 친구들을 따돌립니다. 정화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왓다 당하는 친구를 도와주지 못하고 갈등을 하네요.

<내 짝꿍 최영대>/ 채인선 글 · 정순희 그림/ 재미마주/ 초3~

☆ 엄마가 없는 아이, 영대. 지저분하고 말도 잘 못 한다고 따돌리 당하지만 늘 참아온 영대가 어느 날 울음을 터뜨리지요. 다음날, 영대 위로리 가득 배지를 달아주는 친구들 모습이 마음을 짙게 합니다.

<모르는 책>/ 우메다 사코 · 요시코 글 · 그림/ 길벗어린이/ 초5~

☆ 아라가세 패거리에게 괴롭힘 당하는 돈장을 보고도, ‘나’는 두려워 모르는 책을 합니다. 돈장은 마침내 전학을 가고, ‘나’는 졸업식 예행연습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지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 이문열 글/ 다림/ 청소년

☆ 시골학교로 전학 온 한병태가 엄석대라는 불합리한 권력에 대항해 한 학기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혼자 싸우지요. 어른 소설을 어린이 · 청소년들이 읽을 수 있도록 고쳐 썼답니다.

<내겐 드레스 백 벌이 있어>/ 엘레노어 에스데스 글 · 루이스 슬로보드킨 그림/ 비룡소/ 초4~

☆ 다른 나라에서 이민 온 완다는 늘 벅바렌 피란 드레스만 입고 다닙니다. 드레스가 몇 벌 있느냐며 놀리는 친구들에게 늘 “나한테 드레스 백 벌이 있어.” 하고 대답하지요. 친구들 생각대로, 완다는 정말 이상한 거짓말쟁이었을까요?

<새끼 개>/ 박기범 글 · 유동훈 그림/ 창비/ 초4~

☆ 강아지를 무척이나 귀여워하는 두 아이. 아이들은 강아지를 예뻐하고 잘 해 준다 하지만, 새끼 개는 점점 아이들이 무섭고, 힘이 들어요. 사람들이 아껴준다 할 때 실제로 작은 짐승들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때때로 이렇게 관계하며 살지 않는가 생각되고요.

<평화는 힘이 세다>/ 로라 자테 외 글 · 레지 팔괴 외 그림/ 푸른숲/ 초4~

☆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에요. 폭력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폭력을 이겨낼 수 있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로 꾸몄어요.

3) 위·아래보다 어깨동무가 좋아

중 3 : “△△야!! 너 잠깐 이리 와 봐.”
 초 5 : “어?”
 중 3 : “나랑 좀 할 일이 있어. 잠깐 나와 봐.”
 초 5 : “언니, 나 지금 뭐 좀 할 것이 있는데...”
 중 3 : “나중에 하고 일단 나와 봐. 우리 저기서 담배 한 대 피워야 하니까 망 좀 봐. 알았지?”
 초 5 : “(마지못해) 네.”

나이를 빌어서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하기 힘든 일을 시키고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는 경우도 공부방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공부방 공간을 포함하여 삶의 공간에서 나이에 따라 서열이 결정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입니다. 처음 보는 동무에게 대부분 빼먹지 않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몇 살?” 아니면 “몇 학년?”일 정도로 나이가 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말하는 방법, 대하는 태도 등이 나이에 따라 결정되기도 합니다. 예의범절이라는 이름으로 나이에 따라 위·아래를 만들어 온 우리나라의 관습이 여전히 아이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배려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항상 먼저이거나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아래가 아니라 어깨동무하고 지낼 수 있는 평등한 관계를 우리는 원합니다.

합 통통 인권생활수칙 3

୨ 별칭을 불러 봐요

사람을 처음 만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바로 이름이고, 그 다음 나이가 되는 경우가 많죠. 나이를 알아야 이름 뒤에 어떻게 부를지 알 수 있단가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몇 학년이야?”라는 질문은 누가 언니·형이고 동생인지 결정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인증 절차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호칭이 관계까지 규정한다는 사실. 나이에 따라 위계질서가 생기고, 나이 많은 동무의 눈치를 보면서 언니나 오빠가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경우가 공부방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조금은 어색하지만 서로 별칭을 부르는 건 어떨까요? 물론 지금까지 누나, 오빠라는 호칭을 사용했는데, 하루아침에 이름만 부르거나 별칭으로 부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또 별칭을 부른다고 위·아래의 관계가 단숨에 평등한 관계로 바뀌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런 노력들을 통해 아이들은 평등한 관계가 서로를 자유롭고 편안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조금씩 느낄 수 있을 거예요.

? 알쏭달쏭 ?

그때다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닐까요



알고 지내는 한 초등학교 교사는 몇 년 전부터 아이들과 서로 별칭을 부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서로 경어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거나 깔보면 어쩌나 솔직히 걱정도 됐고, 저러다가 아이들 버릇이 나빠진다고 주변 선생님과도 부터 핀잔도 들었다고 해요. 그럼 잠깐 그이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게 바로 전데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 팽이눈이에요.

책상에 앉아 같이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아이들에게 덧입혀져 있던 ‘학생’이라는 옷이 벗겨지더라고요. 저 자리에 이 아이들이, 내 동무가, 동지가, 동료, 상사가 앉아 있어도, 똑같이 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똑같이 대한다’는 게 어떤 건지, 감이 잡혔다고나 할까? 그래서 학생과 교사라는 옷을 벗고, 사제관계라는 또 하나의 끈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한 걸음으로 별칭 부르기를 시작했지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아이들이 ‘그저 특이한 경험 한 번’으로만 느낄까 봐, 내 진심이 얼마나 잘 전달될까 걱정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오는 ‘엄석대’가 된 느낌이 들어 힘들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렇게 한 해 한 해 보낼 때마다 학생/교사라는 옷을 벗고 손 내밀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동무’가 되려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나한테서나 아이들한테서나.

사실 내가 얻은 게 훨씬 많아요. ‘버릇없다’와 ‘당당하다’의 미묘한 한끝차이의 일상이 좀더 정교하게 보이는 것도 재미나고, 진짜 예의 없는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도 전보다 조금은 더 동등한 눈높이로 솔직하게 나누며 조율하려고 노력하는 내가 꼬물꼬물 더 힘을 얻은 것 같거든요.

내 하루, 내 일상은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습니다. 그건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변하지 않는 사실인데요.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은 아이들이 위안이 되고 웃음이 되는 동지·동무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한 걸음으로 별칭 부르기! 어때요, 같이 하고 싶지요?! 해해해~



4) 갈등 해결사는 바로 아이들

“야!! 이 XX새끼야. 죽을래, 왜 기분 안 좋은데 시비 걸고 지랄이야??”

순간 “퍽!!”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에게 욕을 하며 화를 냈고, 욕을 들은 △△이는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 ○○이를 주먹으로 쳤다. 맞은 ○○가 선생님에게 달려가 선생님, “△△가 저를 때렸어요.”

교사 : 너희 둘 다 이리와 봐!

선생님이 다 지켜봤는데 ○○이는 △△에게 욕한 거 사과하고 △△이는 ○○을 때린 거 사과해.

때리고 욕하는 것은 옳지 못한 거야.

아이1,2 :

교사 : 어서, 뭐하는 거야?

아이1 : 미안해.

아이2 : 나도.

교사 : 그럼 화해의 의미로 악수하자.

공부방에서 지내다 보면 아이들끼리 싸우게 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다보니 교사는 한시라도 아이들에게 눈, 마음을 땔 수가 없고 항상 긴장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공부방을 통해 아이들이 큰 갈등 없이 평화롭게 서로를 배려하며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갈등상황이 벌어지면 화해하고 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위의 상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이는 왜 교사에게 달려갔을까? 아이들은 진심으로 화해했을까? 그리고 만약 교사가 없었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갈등상황을 해결했을까? 이러저런 고민들이 밀려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나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풀기 보다는 상대방보다 더 큰 힘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숙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고, 때로는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동무들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을 우선 폭력으로 해결하려 하고, 결국 자신의 힘으로 안 될 경우에는 더 큰 힘을 빌어서 상황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물론 눈에 닥친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 주변 어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지만, 갈등 상황마다 교사를 앞세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항상 올바른 선택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매순간마다 아이들이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문제를 벗어나려 하고 이에 대해 교사 또한 해결사를 자처하게 된다면 아이들의 갈등 해결 능력은 자라나지 않을 거예요. 또한 악수도 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하면서 둘 사이에 생겼던 갈등은 마치 기억 저편으로 던져 버린 듯하지만 교사가 시키기 때문에 억지로

사과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교사가 바로 개입하지 않았다면, 아이들 사이에서 생긴 갈등을 해결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리고 나서 화해를 한다면, 누군가의 힘을 빌어서 하거나 시켜서 하는 것보다 훨씬 진심이 배어 있겠죠. 또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아이들은 다른 갈등 상황에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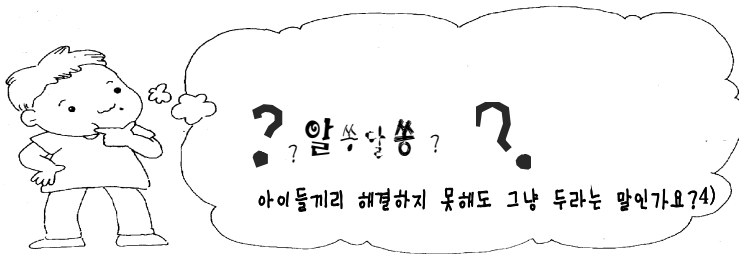
통통 인권생활수칙 4

9 평화의 얼굴로 돌아보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악화될 수도 아니면 더 돈독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평화를 싫어하는 것도 아닌데, 왜 폭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까요? 장난감 총과 같은 무기로 사람을 죽이는 놀이를 하며 즐거워하고, 남자는 무조건 군대를 갔다 와야 한다고 마치 진리처럼 떠들며, 상명하복 관계를 예의 인양 떠받들고 있는 사회에서 일상은 평화와 너무나 거리가 멀죠. 평소 폭력의 얼굴을 하고 있다가 그것도 갈등이 생긴 순간 평화의 얼굴로 바꾸라니... 결국 일상에서 평화를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이 갈등 상황에서 평화로운 해결사로 나서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서 말인데요. 일상을 돌아보며 폭력이라고 느끼는 순간을 아이들과 하나하나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요?

가우똥 가우똥	평화의 얼굴로 돌아보라
<p>목 : 잘만 쓰면 친근감을 더해준다고?</p>	<p>사실 목의 어원을 살펴보면 소수자들을 비하하고, 차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특히 여성,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비하나 범죄자에게 가해진 끔찍한 형벌이 바로 목의 어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보니 어떤 동무에게는 아무런지 않은 표현일지 몰라도, 함께 있는 또 다른 동무나 당사자들에게는 불쾌하고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또한 목이 사용되는 순간을 보면 대부분 상대를 힘으로 제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목은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결국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정서적 폭력을 느끼게 된답니다.</p>
<p>장난감 총, 게임 : 장난은 장난일 뿐 따라하지 맙시다?</p>	<p>텔레비전을 통해 보도되는 전쟁은, 밤하늘을 가르며 떨어지는 폭탄과 불꽃들로 이미 재화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쟁의 끔찍한 참상보다는 폭죽놀이를 먼저 떠올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총과 무기로 무장한 군인들의 모습을 멋지게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아무런지 않게 죽이는 일을 평화로 포장해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전쟁은 저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일뿐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에 불과합니다. 어느새 아이들에게도 전쟁은 끔찍하고 잔인한 현실이기보다는 ‘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칼을 휘두르며, 잔인한 전쟁게임을 하면서 아이들은 전쟁을 이미지로만 기억할 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에는 주목 하지 못합니다. 전쟁놀이 속에서 아이들은 상명하복의 관계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생명의 소중함을 잊게</p>

	됩니다.
<p>놀리기, 따돌림 : 때리지도 않았는데 뭐가 아파?</p>	<p>아이들끼리 놀리는 말 중에는 사회적 편견이 고스란히 담긴 것들이 많습니다. 장애인을 ‘애자’라고 부르거나, 외모를 가지고 놀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른바 ‘정상가족’이 아닌 동무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직접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비하하면서 자신의 즐거움을 찾는 것은 엄연한 폭력입니다.</p>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의 상황에서도 중재자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다만 교사가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아이들은 그 힘에 눌려 교사가 원하는 대로 화해 아닌 화해를 할 수가 있겠죠. 함께 상황을 풀어가게 될 때 교사는 자신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 것이 아니라, 갈등 당사자들이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중재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빠른 시간에 갈등상황이 풀어지기를 강요하지 말아야겠죠. “선생님이 봤는데, 네가 잘못했다.”거나, “이미 다 알고 있으니 바른 대로 말해.” 하는 식으로 죄를 묻는 방식이어서는 안 돼요. 아이들이 얘기하지 못하는 것을 말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이의 표현으로 부족할 때에는 그 마음을 상대 동무가 알아봐 줄 수 있도록 부연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아이들은 이야기가 오가는 과정을 통해 화해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4) 도움말 · 자료 3-2 “아이들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라는 글을 읽어보면 더 생생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어요.



함께 읽어요

평화 · 더불어 살기

<개구리네 한술밤>/ 백석 글 · 유애로 그림/ 보림/ 초1~

❖ ‘발 다친 소시라게 고쳐 주고, 길 잃은 밤아깨비 길 가리켜 주고, 구멍에 빠진 쇠동구리 끌어내 주고,

작한 일 하느라 늦은 개구리’ 날은 저물고, 강애물도 말지만, 낮에 만난 친구들이 나타나 개구리를 도와줍니다. 다 같이 밤 한 술 지어 즐겁게 나눠 먹어요.

<산골 종각>/ 백석 글 · 오치근 그림/ 너른들/ 초1~

❖ 가난한 사람들 쌀을 빼앗고, 힘없는 사람들 옷을 빼앗아 배불리 사는 성격 나쁜 오소리. 때면 오소리에게 당하지만, 산골 종각은 이기는 방법을 여겨지기 물어보고 배우면서 몇 번이고 다시 오소리를 찾아잡니다.

<황소 아저씨>/ 권정생 글 · 정승각 그림/ 길벗어린이/ 초1~

❖ 황소 아저씨네 외양간에 동생들 먹을 것을 구하러 나온 새암쥐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황소 아저씨는 자기 먹을 것을 나눠주고, 새암쥐 형제들에게 놀이도 되어 줍니다.

<쇠를 먹는 불가사리>/ 정하성 글 · 임연기 그림/ 길벗어린이/ 초2~

❖ 전쟁으로 남편과 아이들을 잃고 외딴 집에 홀로 사는 아주머니가 뱀표로 인형 하나를 만들어요. 불가사리라 이름 지어 주고, 노래를 불러 주지요. “뱀표땡기 불가사리야/ 너는 너는 자라서/ 쇠를 먹고 자라서/ 죽지 말고 자라서/ 모든 쇠를 먹어라/ 다 먹어 치워라.”

<무기 팔지 마세요!>/ 위기철 글 · 이희재 그림/ 청년사/ 초5~

❖ 어느 날, 보미는 ‘비비탄’이라는 플라스틱 종알을 이마에 맞습니다. 장난감 총을 쏜 경민이에게 항의하지만, 경민이와 같이 놀던 남자 아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지요. 보미는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평화모임’을 만들어 ‘장난감 무기 수거운동’을 벌이고, “장난감 무기를 팔지 마세요.” 호소하며 행진을 합니다.

<여섯 사람>/ 데이비드 매키 글 · 그림/ 비룡소/ 초2~

❖ 여섯 사람이 있어요. 이들은 평화롭게 살면서 일할 수 있는 땅을 찾지요. 그 곳에서 열심히 일해 부유해졌고, 여섯 사람은 부를 지키기 위해 군인들을 고용합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특별히 할 일이 없자, 여섯 사람은 군인들이 싸우는 병을 잊어버릴까 봐 이웃 농장을 침략하라고 명령하네요.

<해 폭발 뒤 최후의 아이들>/ 구드룬 파우제방 글 · 최혜란 그림/ 보물창고/ 초6~

❖ 여름휴가를 보내러 시골 외갓집에 가는 길에, 몰라트 식구들은 해폭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평화롭던 땅은 순식간에 폐허로 변하고, 끔찍하게 다치고 죽은 사람들, 배고픔과 추위, 살아남은 이들은 처절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평화를 꿈꿔요>/ 옛 유고슬라비아 어린이들 글 · 그림/ 비룡소/ 초3~

❖ 전쟁을 겪은 옛 유고슬라비아 어린이들의 글과 그림들을 엮은 책이에요.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의 체험과 공포, 상처, 희망 등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어 가슴 뭉클합니다.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건 이제 끝>/ 브리지트 라베 + 미셸 뤼엑 글 · 자크 아잠 그림/ 소금창고/ 초4~

❖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전쟁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틀림없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에는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요. 이 사람들은 전쟁을 싫어하고,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지도 잘 알고 있지요.

<어린이와 평화>/ 박기범 글/ 창비/ 교사

❖ 2003년 이라크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함께 겪으며, 침략 전쟁의 긴박한 상황을 사진과 글로 기록했습니다. 글쓴이는 말합니다. “내 몸 스스로 떨 갖고, 떨 누리는 삶으로 기꺼이 되돌아가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가꾸어갈 평화운동입니다.”



장애

<갇달 없는 기괴기 보르카>/ 존 버닝햄 글 · 그림/ 비룡소/ 초1~

✿ 보통 기괴기들과 다르게 갇달 없이 태어난 기괴기 보르카는 다른 기괴기들이 괴롭히고 무관심한 가운데, 모두 배워야 하는 '날기'와 '해엄치기'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마침내 모든 기괴기들이 따뜻한 곳으로 옮겨갈 때, 보르카는 혼자 떨어지게 되어 긴 여행을 하게 되지요.

<휠체어를 타는 친구>/ 줄프리드 립 글/ 보리/ 초4~

✿ 다리가 불편한 키르스텐과 비장애인인 넬레가 사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려져 있어요. 두 친구는 서로 생각과 마음을 나누고 도우면서 남다른 우정을 쌓아갑니다.

<알리체의 일기>/ 알리체 스투리알레 글/ 비룡소/ 초5~

✿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늘 플라스틱 허리 고정기를 차고 휠체어에서 생활해야 했던 열두 살 알리체가 남긴 글들이에요. 밝고 활발하게 살아가며,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알리체의 마음이 감동을 줍니다.

<마티유의 까만색 세상>/ 질 티보 글 · 장 베르네슈 그림/ 어린이작가정신/ 초2~

✿ 시각장애아인 마티유는 보이지 않는 두 눈 대신 서른세 개나 되는 눈을 가졌어요. 손, 발, 코, 입이 마티유에게는 다 눈이고, 특별히 귀에다가는 커다란 눈을 감추고 있대요. 이 눈으로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쳐 지나가고, 새들이 노래하고, 수도꼭지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본답니다.

<내게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J. W. 피터슨 글 · D. K. 래이 그림/ 중앙출판사/ 초3~

✿ 언니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동생이 특별한 장점을 가졌다고 말해요. 전화벨 소리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부르는 소리를 못 들지만, 손의 진동으로 피아노 소리를 감상하고, 풀밭의 아주 작은 움직임까지 알 수 있고, 폭풍 치는 밤에도 무서워하지 않고 새근새근 잘 자는 아이니까요.

<아주 특별한 우리 형>/ 고정욱 글 · 송진현 그림/ 대교출판/ 초4~

✿ 자기가 외아들인 알고 줄 있던 중만에게 어느 날 갑자기 형이 나타납니다. 인사조차 제대로 못 하는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형 종식이를, 중만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방황하는군요.

<우리 누나>/ 오카 슈조 글 · 카미야 신 그림/ 웅진닷컴/ 초4~

✿ 다운증후군 때문에 아기 같은 열일곱 살 히로가 처음 받은 월급으로 한 톨을 내는 이야기, 쇼아마비 아이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면서 즐거움을 느꼈던 어린 시절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는 이야기, 마을 빈터에 불을 낸 여동생 대신 지능이 낮은 토모가 누명을 썼는데도 모르는 척하는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아이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팬텀>/ 고정욱 글 · 최호철 그림/ 낮은산/ 초3~

✿ 쇼아마비로 다리에 힘이 없어 늘 엄마 등에 업혀 등교를 하는 동구인데, 오늘은 엄마가 공부가 끝나고 한참이 지나도록 데리러 오시지 않습니다. 복도 끝에 혼자 앉아 있는 동구를 옆 반 동무 영석이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집까지 업어다 주겠다고 해요.

2-2 아이와 교사

공부방에서 함께 지내는 교사와 아이는 함께 바라고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바람·꿈들을 향해 가는 길에서, 아이와 교사는 서로 배우고 함께 자랍니다. 교사는 특히 아이를 ‘지배하려 하지 않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 삶을 나눌 수 있는지 고민하며 찾아가야 합니다. 이는 아이도 옳은 것, 좋은 것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1) 아이와 교사가 함께 만드는 수업

공부방에서 수업 주제를 정하고 계획을 짤 때, 어린이·청소년들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는지요? 수업 주제와 내용을 정할 때 수업을 같이 하는 어린이·청소년들도 교사와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교사와 아이가 함께 수업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는 물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고 수업 내용을 짤 거예요. 하지만 교사가 짐작하는 것과 아이들이 직접 원하고 뜻하는 바를 밝히는 것은 아주 다를 수 있습니다. 혹은 같은 결과를 얻더라도,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 과정에 참여하는 자체가, 스스로 교육의 주체로서는 뜻있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수업이라면, 그 자체로 자연스럽게 수업의 동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함 통 통 인권생활수칙 5

9 수업 주제 함께 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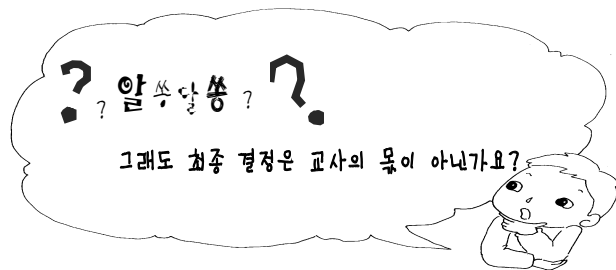
수업 주제를 정하기에 앞서,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교사는 공부방 교육 철학과 방향, 여건 등에 따라 어떤 수업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지 밝히고, 아이들은 그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 또 그밖에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이나 함께 할 수업에 대해 바라는 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는 과정을 거치며 수업의 틀을 좀 더 뚜렷이 잡아가고, 서로 뜻을 모아갈 수 있습니다.

99 ‘요목조목’ 수업 계획 나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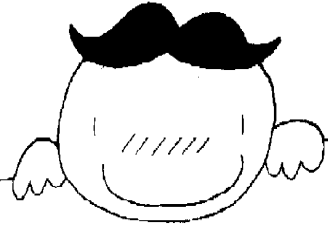
수업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하더라도 수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정리하는 것은 교사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그 수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것들을 나누고 싶은지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가 필요해요. 그리하여 아이들은 수업에 대해 미리 짐작할 수 있어 동기를 얻을 수 있으며, 기대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୨୨୨ 수업 느낌 나누기와 평가

교사와 아이들이 수업에 대한 자기의 느낌과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습니다. 날마다 수업이 끝난 뒤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수업을 간단히 평가하고, 학기가 끝날 때(일 단락 되는 시점)마다 여러 가지 알맞은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평가가 단지 교사의 수업방식만을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이들이 수업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 수업에 좀더 잘 참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아이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수업이 쌍방향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업에서 소외되는 동무는 없는지 등을 살피기 위함입니다. 이런 느낌 나누기와 평가는 그 다음 번(또는 다음 학기) 수업을 준비할 때 반영하거나 참고할 수 있겠지요.



공부방마다 교사 수가 넉넉지 않거나, 나눌 수 있는 수업 주제들이 정해져 있다거나, 교사와 아이들 사이 관계가 덜 머물어 원만한 소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 형편이 어려워 할 수 있는 활동에 한계가 있거나 아니면 공부방의 교육철학과는 너무나 다른 교육 내용을 아이들이 원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 공부방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수업의 내용이 결정되어야 하며, 결국 마지막 결정은 교사들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지만 미리 공부방의 상황과 교육 철학에 대해 적극적으로 아이들과 이야기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아이들도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갖게 되며, 함께 수업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함께 읽어요

자유 · 자기 결정권

<내가 결정할 거예요>/ 브리지드 라베 + 미셸 뫼엑 글 · 자크 아잠 그림/ 소금창고/ 초4~

✱ 유유는 강아지를 키우고 싶습니다. 부모님은 강아지를 키워도 좋지만 유유 혼자 힘으로 돌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유유는 망설입니다. 이제, 선택권은 유유에게 있습니다.

<머피와 두칠이>/ 김우경 글 · 송진현 그림/ 지식산점사/ 초5~

✱ 이기적이고 때론 잔인하기까지 한 사람들에게서 벗어나 자유를 찾아 가는 개, 두칠이의 이야기. 자기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등 여러 철학적인 질문들을 던져 주고, 우리 둘레의 자연물들을 따뜻한 눈으로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는 책이에요. 마지막에 두칠이가 '개들의 대장'이 되는 내용은 무척 아쉽지만...

<마당을 나온 암탉>/ 황선미 글 · 김환영 그림/ 사계절/ 초6~

✱ 암탉 '일삭'은, 양계장에서 주는 대로 먹고, 알이나 낳아 주는 것은 암탉의 삶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을 품어 병아리를 키우고 싶은 일삭은 그래서 편하고 안전할 수 있는 마당을 나와 버리지요.

<내 이름은 뽀뽀 뽀스타킹>/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글 · 룰프 레티시 그림/ 시공주니어/ 초4~

✱ 혼자 사는 아이 뽀뽀는 날마다 즐겁고 신나게 살아가요. 어른들한테는 행실 나쁘고 걱정스러운 아이이지만, 아이들한테는 신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는 정말 좋은 친구예요.

<어린이 나라 뽀포스타를 찾아서>/ 이선영 글/ 한아당/ 교사

✱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인 150여 명의 어린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어린이 자치마을 뽀포스타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모든 일들이 어린이 주인들의 자치로 운영되며, 그 가운데서 시민의식과 평화 등을 스스로 체득하게 됩니다.

2) 수업 참여가 힘든 아이의 마음 들여다보기

종종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아이가 있지요. 이런 경우,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해 온 교사는 아이가 함께 공부하여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수업에 참여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얼레고 달래다가 그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벌을 주고, 무섭게 해서 강제로 수업에 참여시키기도 하지요. 하지만 아이가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에 참여시키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수업에 참여하기 싫은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수업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아이는 나름의 까닭이 있습니다.

▶ 몸과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때

: 몸이 아플 때는 누구든 기분이 맑지 못하고, 모든 일이 귀찮거나 싫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교사도 마찬가지니까요.

: 집이나 학교, 공부방 오는 길, 또는 공부방에서 수업 시작 앞서 안 좋은 일을 겪었는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야단을 맞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수도, 기껏 오면 딱지를 잃어버렸을 수도, 동무랑 싸우고 화해를 못해 찔찔함이 남아 있을 수도 있겠지요. 아이가 그런 일들로 불편하고 힘든 마음을 떨쳐내지 못한 상태라면, 그 상황에서 수업은 그야말로 억지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업을 기대해야 할 아이의 마음이 이미 다른 일로 꽂혀 있는 것일 테니까요.

▶ 수업이 재미없거나 힘들다고 생각될 때

: 수업 주제가 아이의 취향이나 관심과 거리가 먼 경우, 또 자기 수준에 맞지 않아 너무 어렵거나 쉽다고 느낄 때도 하기 싫어할 수 있겠지요.

: 수업에 대해,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 그 수업을 하는 것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동기를 얻지 못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 수업 내용이나 성적, 나아가 삶에 대해 자신감이 없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생겨 그럴 수도 있겠지요. 특히 학교 공부(성적)와 연결되는 수업을 할 때, ‘해도 안 된다.’, ‘재미없어서 포기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더 나아가 자기 삶에 대한 기대나 전망도 흐릿해져 무기력해지거나 비관에 빠지기 쉽지요.

: 교사가 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수업 방식이 다양하지 못한 것도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교사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미처 예상치 못한 일에 당황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는 사이 아이들은 수업의 흐름에서 빠져나와 제각각 다른 데서 자기 흥밋거리를 찾게 됩니다.

▶ 수업 안에 방해 요소가 있을 때

: 자기를 괴롭히는 동무가 함께 수업을 한다면, 마음을 수업에 오르기 힘들 것입니다. 평소에 괴롭힘을 당하든, 수업

안에서 교사 모르게 그대든, 괴롭힘 당하는 아이는 위축되거나 불안하여 수업에 원만하게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화를 엉뚱한 데로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 수업을 할 때 보통은, 교사의 자리가 매우 크고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평소 아이와 교사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수업의 질이나 깊이도 달라질 수 있겠지요. 아이와 교사 사이에 믿음이 부족하거나 아이가 ‘선생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것도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까닭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까닭들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무조건 인정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참여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런지에 대해 먼저 살피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인정해 주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럴 때 아이들도 교사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하고, 입을 다물거나 무조건 ‘싫다’는 말보다는 왜 그런지 마음을 터놓으려고 할 거예요.

함 통통 인권생활수칙 6

9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기

보통의 경우 아이들은 수업에 참여하기 싫은 경우 ‘땡땡이’를 치거나 억지로 자리만 지키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교사와 아이의 관계가 대부분 나이의 많고 적음, 자리의 높고 낮음, 권한의 크고 작음을 따져 이미 ‘상하’로 뗏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나 다른 어른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더구나 가정 형편이 여유롭지 못한 아이들은 자기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생활·교육 환경에서 자라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움츠러들어 밖으로 내비치는 생각과 느낌을 자신도 모르게 ‘검열’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표현을 하지 않거나 솔직하지 못하게 표현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 욕구와 부딪쳐 마음의 갈등이나 답답함을 일으키고, 그 속 맺힘은 엉뚱한 곳에서 터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을 때 무엇보다 아이가 먼저 스스로 자기 뜻과 그 까닭을 교사에게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교사도 아이들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 기울여 듣고, 그 마음과 생각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 또한 쉽지 않으며 솔하게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 몸에 익숙해 질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교사가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아이를 인격체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표현은 여전히 서툴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도 이때껏 살아오며 체화된 표현 방식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무엇보다 먼저 마음 놓고 자기를 열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아이의 행동이나 말과 부딪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 이야기를 정말로 열심히 들어 주네. 내가 정말 받아들여지는구나.’ 하는 경험들이 아이 안에 차곡차곡 쌓이다보면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힘과 더불어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자라날 수 있을 거예요.

한 번, 두 번 좋은 경험들을 쌓아 가다보면 아이들은 ‘교사(또는 어른)에 대한 불신’이라는 깨기 힘든 벽을 뚫고 나와 두려움과 의심을 거두어 버리고 ‘말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 진정으로 터져 나오는 말들을 소중히 받아 안고, 인정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୨୨ 판단 전에 있는 그대로 살피기

교사는 아이들을 만나는 순간순간 ‘옳다’, ‘그르다’는 잣대를 들이대기가 쉽습니다. ‘그래, 이 정도는 괜찮지.’, ‘아니,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겠는데...’ 하는 식으로요. 그런데 아이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이렇게 옳고 그름의 잣대로 먼저 판단해 버리고 나면, ‘그르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대뜸 화를 내거나 야단을 치고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아이의 모습을 제대로 살펴보고 이해하는 일은 어려워지겠지요. 그래서 ‘이 아이의 행동은 어땠다.’ 판단하기보다 ‘이 아이가 지금 ~하고 있구나.’라고 있는 그대로를 보려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수업 시간에 바닥에 누워 있다고 할 때, ‘학생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누워 있을 수 있지? 안 되는 일이지!’ 하는 대신 ‘아, 이 아이가 바닥에 누웠네. 그런데 얼굴이 일그러져 있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살피고 읽어 아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다음 관심을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괜찮아지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까?’로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୨୨୨ 대화가 필요해

누군가에 대해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오해 없이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아이가 어떤 모습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 세계 표현하는지에 따라, 또 그것이 어떤 일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짐작하는 데 따라, 언제 어느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지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언제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지 아이의 의사를 들을 수도 있겠지요.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이 자리를 만들어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어디서	언제
① 수업을 잠깐 멈추고 다른 동무들이 있는 자리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 행동이 수업을 그대로 진행하기 힘들 만큼 방해가 되고, 그 까닭이 수업을 함께 하는 다른 아이들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표현은 한 아이가 하고 있지만, 다른 아이들도 비슷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짐작되는 경우 ● 다른 아이들과 함께 토론하는 것이 그 아이를 지지하여, 마침내 수업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다른 동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사이 잠깐 나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의 자존심이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또는 다른 방해 없이 이야기 나누기 위해 교사와 아이 단 둘이 만나야 하되, 되도록 빨리 문제를 풀어야 한다거나 행동을 멈추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그대로 두었다가 수업이 끝난 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이 조금 지나면 스스로 추슬과 수업에 참여하겠다’고 짐작되는 경우 ● 수업 진행을 멈출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교사에게 수업이 끝날 때까지 함께 있어 달라고 도움을 구할 수 있거나 그냥 두어도 당장 별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하는 경우 ● 이야기를 시작하면 길어질 것 같거나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낼 문제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렇다면 아이와 이야기를 나눌 때 교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을까요?

‘아이도 교사와 똑같은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교사의 자세와 태도에 그 생각이 고스란히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이가 교사와 마주 대할 때, 어렴풋이나마 ‘나는 내 앞의 선생님과 똑같은 사람이구나.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겠구나.’ 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하겠지요.

▶ 눈높이로 마주앉기

교사와 아이가 함께 서면, 보통은 교사가 아이를 내려다보게 됩니다. 아이를 앉혀 놓고 교사가 서 있다면 말할 것도 없고요. 교사는 의자에 앉고 아이는 서 있으면, 눈높이는 맞을지 모르지만 처지는 뚜렷이 다르다고 느낄 겁니다. 앉은키가 달라 불편하다면, 교사가 몸을 앞으로 조금 수그린 채로 마주앉는다면 좋겠지요.

▶ 아이와 같은 자세로 앉기

분위기나 이야기 주제의 무게에 따라 책상 다리를 하고 앉을 수도, 무릎을 꿇을 수도, 좀더 편안한 자세로 앉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이의 자세가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기에 알맞지 않다면, 교사가 먼저 바람직한 자세를 잡고 아이한테도 그리하기를 청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행여, 아이는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데, 또는 교사가 그렇게 앉기를 요구해 놓고, 교사는 기우뚱 경성으로 앉아 있는 일은 없어야겠죠.

▶ 눈 맞추기

상대방과 눈을 맞추다는 건 마음의 길을 그리로 열어놓는다는 뜻이 됩니다. 교사와 눈을 맞춘 아이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믿음을 가지고, 진지하고,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 알맞은 반응을 보이며 잘 듣기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간단한 대답으로 반응을 보여 줍니다. 교사 스스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이의 말을 간단히 정리해 되물어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럴 때 아이는 ‘선생님이 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이야기를 나눌 때는 무엇보다 먼저 아이의 말을 충분히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감하기 / 선불리 판단하거나 훈계하지 않기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었다면, 그 마음을 읽어주며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사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다음 순서가 되어야겠지요. 선불리 판단이나 훈계조의 이야기라면, 아이는 자신이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껴 마음을 곧 닫아버릴 지 모릅니다.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교사의 느낌과 의견을 전한다면, 아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일 거예요.

○○○○ 수업 참여가 힘든 아이에 대한 교사의 대처법

● 몸과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때

- ① 몸이 아플 때 : 당연히 아프거나 피곤하다면 쉬어야겠지요. 어디가 어떻게 얼마나 안 좋은지, 집에 보호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잠시 다른 방에서 잠을 자도록 하든지, 차를 끓여주거나 지압을 해 주든지, 병원에 데려가거나 집에 가도록 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 ②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 : 아이 말을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것만으로도 아이는 마음에 담아 놓은 문제를 훨씬 가볍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스스로 더 풀어내야 할 과제가 남는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같이 생각해 보고, 잘 해 낼 수 있도록 용기와 의욕을 북돋워 주면 좋겠어요.

● 수업이 재미없거나 힘들다고 생각될 때

- ① 처음 수업을 만들 때, 그리고 수업을 해 나가며 그 때 그 때,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수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만들어 간다면, 수업을 아예 하기 싫어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앞 쪽지 ‘아이와 교사가 함께 만드는 수업’ 참고)
- ② 수업 내용이나 성적, 나아가 삶에 대해 자신감이 없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일 때 : 이럴 때일수록 앞날에 대한 전망을 현실에 맞게 좀더 뚜렷이 그려 보고, 목표를 세워, 다시 한 발짝씩 나아가고 싶게끔 돕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표는 길게 보고 잡는 큰 목표가 있겠고, 짧은 기간 안에 이뤄낼 수 있는 작은 목표가 있을 수 있겠지요. 짧은 시간 안에 작은 것에서부터 조금씩 이뤄내어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함께 아이의 능력에 맞는 자세한 계획을 짜 보고, 힘을 내어 노력할 수 있도록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 ③ 교사가 수업 준비를 제대로 못 했을 때 : 수업을 진행하다가, 아이들의 반응을 보아 진행 방법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느끼면, 준비한 것을 과감히 바꿔가는 순발력과 융통성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수업 전달 무리하지 않고 제 시간에 자기, 지난 시간 같듯이 있던 아이와 이번에는 어떻게 만나는 것이

좋을까 하는 더 좋은 방법 찾기, 지난 한 주 다른 교사들이 쓴 수업일지를 보며 아이들 분위기와 상황 파악하기, 수업을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한 자료 만들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④ 공부에 질린 아이 : 똑같은 무계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아이라면, 과제의 양을 줄이거나 어떤 수업은 예외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글쓰기 수업에서 차분히 앉아 곰곰이 생각하며 글을 쓰는 일을 힘겨워 하는 아이는, 억지로 글을 쓰는 것보다 좋아하는 책을 골라 보든지 놀거나 쉬는 편이 아이에게 훨씬 좋으리라 봅니다. 물론 교사가 임의로 판단해 정할 것이 아니라, 그 아이와 상의해 어떻게 할지 정하고, 또 함께 수업하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도움을 구해, 이해하는 가운데 예외 상황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지요.

● 수업 안에 방해 요소가 있을 때

① 괴롭히는 동무가 있을 때 : 그 동무(들)와 마주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둘이(당사자끼리) 만나 풀 수 있는 정도면 기회를 만들어 주고, 힘이 기울어 둘이서만(당사자끼리만) 풀기 힘든 경우로 보이면 상황에 따라 다른 아이들이 중재를 도울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교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교사가 양쪽 아이를 따로따로 깊이 있게 만나야 할 수도 있겠고요.

② 아이와 교사 사이에 믿음이 부족할 때 : 교사와 아이는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일상생활과 수업에서 꾸준히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마음을 열고 친밀감을 느끼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조금함은 버리는 게 좋겠지요. 아이가 교사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면, 교사는 기다리는 자세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할 거예요. 잘한 일이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행동에 대해서 칭찬해 준다든지, 아이가 좋아하거나 관심가지는 것들에 대해 같이 관심을 보인든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겠죠.

● 모든 경우, 아이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

아이가 교사한테 수업에 참여하기 싫은 자기 뜻과 까닭을 뚜렷이 밝히면 훨씬 쉽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엉뚱한 방법으로 표현을 한다면, 함께 수업하는 다른 동무들을 방해하게 되고, 서로 마음도 언짢아질 수 있지요. 시간도 많이 걸릴 테고요. 그런 경우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요?

“아까 나는 네가 왜 그렇게(아이가 한 행동 그대로 설명하기) 했는지 잘 몰랐어. 다음엔 네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내가 오해하지 않고 잘 알 수 있도록 말로 자세히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아, ○○가 지금 그렇구나.’ 하고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해 줄 때는 듣기 좋은 목소리로 말해 주면 좋겠다.”

3) 나쁜 아이 딱지 떼기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몸에 고통을 주는 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벌은 아이에게 오히려 상처만을 남길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에 제재나 압력을 가하는 방법 대신, 상처를 주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깨닫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가 잘못했다고 할 때, 교사가 어느 범위까지를 ‘잘못’이라 여기는지,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바람직하지 않거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을 때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런 잘못을 할 때는, 그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인지 미처 알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알고 있지만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엔, 그 행동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또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으면서도 노력하지 않아 비롯된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무조건 아이를 욕박지르고 나쁜 아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아이의 반응과 일이 일어난 때의 정황을 살펴보고, 이야기를 통해 그것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후에는 아이가 몰랐던 것을 알 수 있도록 돕거나,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 스스로 잘못을 깨달아 생각이나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할 통통 인권생활수칙 7

9 ‘심판자’가 아닌 ‘길잡이’가 되자

똑같은 잘못을 했다하더라도, 각각의 사정에 따라 교사의 태도와 행동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쉽지 않겠지만, 경우에 따라 교사가 아이와 나눠야 할 부분이 달라집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인지 알지 못해 한 것이라면, 그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어떤 까닭으로 그렇다는 것을 ‘알려’ 주거나 또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진 일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의도치 않게 실수로 일어난 일일 경우에는 아이도 그 결과에 대해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수치심·죄책감을 느끼며 후회를 할 거예요. 그럴 때에는 교사가 굳이 그 잘못에 대해 지적하며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지 않아도 괜찮겠죠. 이미 잘못을 깨닫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가 그 잘못에 대해 되짚어 이야기하는 것을 아이는 질책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아이는 죄책감을 더하거나 반대로 반발심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답니다. 먼저 아이가 스스로 한 일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조용히 도우면 좋겠습니다. 그런 후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같이 자세한 방법을 상의한다든지, 조심할 부분을 짚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부방 아이들의 경우 상처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약하고 힘든 부분이 반항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누군가의 관심을 끌기 위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따뜻하게 위로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 다음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데 그 방법이 괜찮았는지 등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바람직한 표현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겠습니다.

이미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크든 작든 책임이 따릅니다. 그 일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마음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그 자리에서 수습해야 할 일이라면, 바로 그 처리부터 할 수 있도록 하고, 금방 해결하기 힘든 일이라면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해결 방법이 아이들에게 ‘벌’로서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그것을 만약 책임을 지기에 앞서 벌로 대신한다면 아이들은 그것을 책임을 다한 것으로 느껴 더 이상 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벌이 아닌 책임을 질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과정이며, 잘못으로 그르친 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아이들도 변화를 경험할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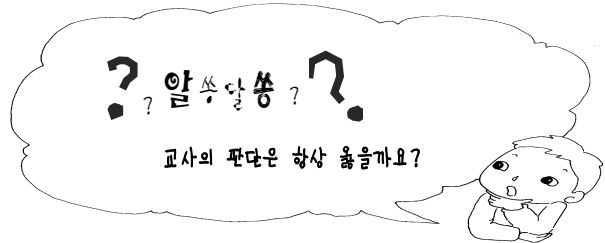
99 잘못을 ‘잘못’으로 책임질 수는 없어요⁵⁾

아이도 옳은 것, 좋은 것을 찾아 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스스로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바람직한 삶의 환경을 만들어 주며 격려한다면, 아이들은 그 바탕을 딛고 자기 안의 힘을 충분히 발휘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론 비틀비틀 걷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일지라도 머지않아 중심을 잡고 걸을 것이기에,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교사가 오히려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본을 보인다면, 그 순간부터 교사는 아이 탓만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교사가 아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끈다고 하면서, 때리거나 벌을 주거나 욕을 하는 등 교사라는 이름과 힘으로 강압적인 방법을 쓰게 된다면, 그것처럼 모순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을 당한 아이는 자존감을 잃고,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도리어 자기 행동을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강화해 나갈 수 있지요.

5) 도움말 · 자료 3-3 <체벌 없이 기를 수 있다> 글을 참고하세요.

아이의 잘못에 반감을 느껴, 행여 아이한테 상처를 주거나 되값을 하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지, 교사는 스스로 잘 살펴야합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교사인 나를 포함해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이 때 중요한 건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음엔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임을 잊지 않아야겠죠.



보통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교사입니다. 교사는 자신의 가치 기준에 따라 잘잘못을 판단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할 때 ‘잘못’의 기준이 정당하지 못할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어른들이나 학교에서는 학생의 신분에 맞게 두발 규제를 하는 것이 이들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발 자유를 말하는 청소년들의 요구는 ‘잘못’되었으며, 따라서 신체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은 마땅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강변합니다. 하지만 정작 ‘잘못’된 기준은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학교의 규칙이지 두발 자유를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요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청소년들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기 이전에 교사나 어른들이 내린 판단의 기준이 정당한지, 인권적인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먼저 되어야겠죠.

나아가 아이들의 선택이 잘 났는지, 잘못 났는지를 판단하고 평가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그러한 선택으로 인해 상처받거나 후회할 때조차도 그것을 계기로 아이가 좀 더 나은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교사의 몫이며 공부방의 역할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심판자’보다는 ‘길잡이’의 역할을 해 주는 이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읽어요

아이의 차지에서 이해하기

<지각대장 존>/ 존 버닝햄 글 · 그림/ 비룡소/ 초1~

- ★ 아이의 행동에는 아이 나름의 까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악어와 사자, 파도를 만나 지각한 존의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은 선생님은, 어느 날 고릴라에게 볼들려 천장에 매달려지고 말지요.

<나쁜 어린이표>/ 황선미 글 · 권사우 그림/ 웅진닷컴/ 초3~

- ★ 우연히 싸움을 하게 되고, 놀다가 공부시간에 조금 늦는 일들로 나쁜 어린이표를 받게 되는 건우. 착한 어린이표를 받고 싶어 노력하지만, 선생님이 정한 규칙에 어긋나 자꾸 나쁜 어린이표를 받게 되는군요.

<문제아>/ 박기범 글 · 박경진 그림/ 창비/ 초5~

- ★ 학교와 사회에서 소외된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문제아', '독후감 숙제', '김미선 선생님'과 같은 동화들이 들어있어요. 사회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모습들을 되짚어보고, 아이들 눈으로 풀어냈답니다.

<까마귀 소년>/ 야시마 타로 글 · 그림/ 비룡소/ 초3~

- ★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6학년이 될 때까지 늘 혼자인 개치내온 땅꼬마를 새로 부임한 이소베 선생님은 알아봐 주십니다. 그리고 학예회 날 무대에 오르게 된 땅꼬마가 온갖 종류의 까마귀 소리를 흉내 내었을 때 친구들과 어른들의 마음은 움직이고, 그 날부터 '까마귀 소년'이 되지요.

<못 믿겠다고?>/ 루이스 새커 글 · 윤소연 그림/ 바람의 아이들/ 초6~

- ★ 브래들리는 자기만의 세계 속에 살며, 다른 이들에게 이해받지 못한 채 문제를 취급을 받지요. 하지만 팔라 선생님을 만나고부터는 그 자신도, 친구들과 친구들도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팔라 선생님은 브래들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믿어주며,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 하였던거요.

학대받는 아이

<내 동생 아영이>/ 김중미 글 · 권사우 그림/ 창비/ 초4~

- ★ 영욱이는 '다윤증후군'이라는 장애를 가진 동생 아영이를 귀찮고 창피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엄마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회수는 아영이를 참 좋아하고 친해지지요. 둘을 지켜보던 영욱이는 아영이와 회수의 마음을 알게 되답니다.

<해야 해야 잠꾸러기 해야>/ 이연경 글 · 이소하 그림/ 바람의 아이들/ 초5~

- ★ 걸핏하면 엄마한테 매를 맞는 열한 살 여자 아이, 주눅 들어 살지만 마음 시들지 않고 살아가는 상효의 이야기예요.

<내 친구에게 생긴 일>/ 미라 로베 글 · 박혜선 그림/ 크레용 하우스/ 초6~

- ★ 체육복을 갈아입는 탈의실에서 올리아는 우연히 하인리히의 등에 매 맞은 자국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구들, 선생님을 비롯해 모두 하인리히 돕는 일을 꺼리는 가운데, 올리아는 이 친구를 도울 결심을 하지요. 그 누구도, 부모일지라도 함부로 아이들을 때릴 권한은 없다고 생각하면서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J. M. 바스콘셀레스 원작 · 이희재 그림(만화)/ 청년사/ 초4~

- ★ 다섯 살 작은 약마 제제와 제제의 영원한 친구 보르뚜가, 그리고 가난한 제제네 식구들의 삶이 잘 그려져 있어요. 원작 소설을 만화로 그렸습니다.

<학대받는 아이들>/ 이호철 글/ 보리/ 교사

- ★ 아이들이 맺힌 마음을 푸는 글쓰기를 하며, 응어리지고 상처 입은 마음을 드레넌 글들을 담았습니다. 어른들이 무심코 한 말 한 마디, 행동 한 가지도 아이들에게 크고 작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4) 맛있고 즐겁게 남남 찹찹

오늘도 영민이는 식판을 앞에 놓고 선생님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공부방에서 함께 먹는 식사에서는 몇 가지 규칙이 있다.
 바로 남김없이 음식을 먹는 것! 골고루 먹도록 하기 위해 반찬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
 영민 : (남은 김치와 나물을 바라보며) 진짜 못 먹겠어요.
 선생님 : 우리가 함께 한 약속이니 지켜야 해. 다른 동무들도 모두 먹었잖니.
 영민 : 먹기 싫은 건 안 먹으면 안 돼요?
 선생님 : 다 너희들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 거야. 안 먹으면 먹을 때까지 집에 못 가는 거 알지?
 영민 : 휴~, --;;

함께 밥이나 간식을 나누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밥을 나누면서 오가는 웃음과 슬픔, 기쁨의 이야기들은 양념처럼 어우러져 사람들 사이를 더욱 맛깔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즐거운 식사 시간이 동무들에게는 그리 즐겁지만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음식을 남김없이 먹어야 하거나 선택해서 먹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실제 어떤 공부방에서는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아이를 붙잡아 놓고 음식을 다 먹은 다음에야 집에 돌려보낸다고 하네요. 물론 환경과 생태, 그리고 아이의 건강을 생각하는 교사의 마음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사의 권위로 아이에게 억지로 먹을 것을 강요하거나 공동체의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취향을 억압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되겠죠. 밥이나 간식을 함께 먹을 때는 아이가 자기 식성대로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과 생태가 아이의 자기결정권보다 더 우위에 있다거나 서로 충돌하는 것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함께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공부방의 먹을거리는 후원해 주는 분들의 손길 속에서 풍성해지기도 합니다. 참 고마운 분들이죠. 그런데 가끔은 음식을 받으면서 속상한 일도 생깁니다. 먹기에는 모양이 너무 망가졌거나 음식의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것도 있죠. 또 생태나 환경, 아이들의 건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패스트푸드와 같은 음식-음식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밥이나 간식을 제때에 챙겨줄 어른이 없는 아이들에게 한 끼의 식사와 간식은 이들의 마음과 몸을 채워주기에 무척이나 소중한 겁니다. 하지만 음식이 그저 배를 불리거나 입을 즐겁게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몸과 마음까지 풍성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떤 음식을 먹을지도 공부방의 고민 속에 녹아 있어야 합니다.

함 통통 인권생활수칙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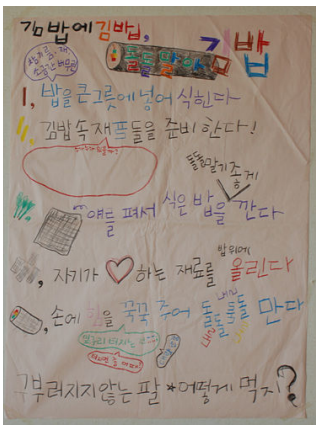
୧ 아이들의 선택권 ‘빼앗지’ 않기

음식을 먹을 때, 누구든 자연과 사람에 고마운 마음으로 남김없이 먹는 태도는 참 중요합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 필요한 영양소들을 골고루 얻으려면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는 습관도 들여야겠지요. 하지만 당위가 앞서 아이의 음식 취향이나 양이 무시되어선 안 됩니다. 자기 몸이나 입에 맞지 않거나 자기 양에 넘치는데도 마지못해 먹어야 한다면 아이는 무척 곤욕스러울 거예요. 도리어 음식을 대하는 고마운 마음이나 즐거움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태롭게 하거나 해치는 것이 아니라면 아이의 선택권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대신 아이가 자연이 선물한, 그리고 노동이 깃든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୧୧ 음식 속에 담긴 이야기 들려주기

어느 공부방에서는 아이들이 음식을 골고루 먹고 그 안에 깃든 자연의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음식 이야기를 준비한다고 해요. 음식과 관련된 옛 이야기나 건강과 관련된 상식, 재료나 요리법 등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다보면 손도 대지 않던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먹으려는 노력을 한다고 하네요. 아니면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더불어 음식을 만들면서 서로를 살리는 노동에 대한 소중함과 그것이 어느 ‘누군가’의 땀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해야 하는 노동이라는 걸 아이들이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요리법의 예) 김밥에 김밥 돌돌말아 김밥



일, 참기름, 소금, 깨로 버무린 밥을 큰그릇에 넣어 식힌다.

이. 김밥 속 재료들을 준비한다.(무엇이 들어갈까? 아이들이 직접 써 넣을 수 있도록 한다.)

삼. 김을 펴서 식은 밥을 돌돌 말기 좋게 깎는다.

넷. 자기가 좋아하는 재료를 밥 위에 올린다.

다섯. 손에 힘을 꼭꼭 주어 돌돌 만든다.

★ 구부러지지 않는 팔로 어떻게 먹지?

● 준비물: 김, 단무지, 오이, 당근, 맛살, 김치, 달걀

(예를 들어 아이들이 당근을 먹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생태 · 환경

<또야 너구리가 기운 바지를 입었어요>/ 권정생 글 · 박정진 그림/ 우리교육/ 초1~

☆ 아기 너구리 또야는 기운 바지가 싫으니 새 걸 사달라고 떼를 써요. 엄마는 이런 또야를 안고 이야기해 주지요. “그런데 말이지. 또야가 이 기운 바지를 입으면 산에 들에 꽃들이 더 예쁘게 핀다.” “시냇물에 고기들도 더 많이 살고...” “하늘에 벌님들도 더 예쁘게 반짝거린다.” 또야는 기운 바지를 입고 유치원에 갑니다.

<생명이 들려준 이야기>/ 위기철 글 · 이희재 그림/ 사계절/ 초5~

☆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죽고 싶어하는 토달이한테 ‘생명’이 찾아옵니다. 토달이는 ‘생명’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들으며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지요.

<황금 똥을 누는 아이>/ 홍은경 글 · 정민아 그림/ 느림보/ 초3~

☆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식품을 좋아하는 유진이가 건강해지기 위해 황금 똥을 찾아 헤매는 엉뚱하고도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옛날부터 먹어 온 우리 음식들이 얼마나 몸에 이로운 것들인지, 밥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씨앗을 지키는 사람들>/ 안미란 글 · 윤정주 그림/ 창비/ 초6~

☆ 가상의 미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문제를 돌아보게 합니다. 대규모 다국적 기업인 ‘21세기 콜럼버스’ 사는 싹갓에다 꽃을 피우지 못하고 씨앗을 맺을 수 없도록 특수처리를 해 놓고 특허를 받습니다. 그런데 박물관 원예사인 진희 아버지는 싹갓을 키워 몰래 꽃을 피우고, 마침내 다국적 기업과 정치인의 모략으로 감옥에 가게 되지요.

<샘마를 몽당깨비>/ 황선미 글 · 김성민 그림/ 창비/ 초5~

☆ 삼백 년 동안 은행나무 뿌리에 갇혀 있던 몽당깨비가, 나무가 옮겨지는 바람에 바깥 세상에 나오게 됐어요. 몽당 빗자루로 바깥에 쓰레기 조각장에 실려 간 몽당깨비는 버려진 인형 미미를 만나, 변해 버린 세상을 알게 됩니다.

<지엠오 아이>/ 문선이 글 · 유준재 그림/ 창비/ 초6~

☆ 일상에 파묻혀 때론 제대로 보지 못하는 현실의 문제들, ‘미래’라는 그릇을 통해 한층 더 뚜렷이 볼 수 있지요. 정상적인 유전자를 가졌지만 기계처럼 살아가는 정 회장과 유전자 조작으로 태어났지만 아이디어를 간직한 ‘나무’가 함께 살아가며 겪는 이야기랍니다.

<쿨쿨 할아버지 잠깐 날>/ 위기철 글 · 신혜원 그림/ 사계절/ 초3~

☆ 겨울 동안 좀처럼 볼 수 없는 쿨쿨 할아버지는 봄만 되면 나타납니다. 할아버지는 몰래도 아파트 주차장에 씨앗을 뿌려 풀밭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개울을 만들어 주지요. ‘쿨쿨 할아버지 잠깐 날’을 비롯해 짙은 동화 여덟 편이 모여 있어요.

<나무 위의 아이들>/ 구드룬 파우제방 글 · 임계 쉬타이네게 그림/ 비룡소/ 초3~

☆ 숲을 가꾸며 살아가는 산타나네 식구들. 그 아이들은 숲에서 노는 것을 좋아해요. 어느 날 숲 주인 리폴이 찾아와, 숲을 불태워 새 밭을 만들겠다고 하지요. 하지만 산타나네 아홉 아이들과 리폴의 아들 움베르토는 자기들이 사랑하는 이 삶의 터전을 스스로 힘으로 지켜냅니다.

<나무는 좋다>/ 제니스 메이 우드리 글 · 마르크 시몽 그림/ 시공주니어/ 초1~

☆ 나무는 참 좋아요. 하늘을 가득 채우고, 숲을 이루지요. 그늘을 만들어 주고, 무엇이든 걸 수도 있어요. 튼실한 가지에 걸터앉아 생각할 수 있게 해 주고, 먼 곳을 가슴 뻗 뚫리게 볼 수 있게 하고, 새가 둥지를 틀 수 있게 해 주는 나무... .



함께 읽어요



<지구를 구한 공룡이 사우루스>/ 캐린 트레포드 글 · 제이드 오클리 그림/ 현암사/ 초3~

☆ 공룡이 사우루스 2세가 공룡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렁이 활약의 역사를 들려줍니다. 자연의 순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톡톡히 해 내며 지구를 살려온 지렁이들과 그 도움을 받고 사는 다른 모든 생물들이 도시화 ·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큰 위기를 맞고 있어요.

<라다크 소년 뉴욕에 가다>/ 헬레나 노르베르 호지 외 글 · 매튜 윈터베르거 그림(만화)/ 녹색평론사/ 초5~

☆ 히말라야 고원의 라다크 마을 사람들은 자급자족하며 살아가요. 라다크 소년 리진은 미국에 초대받아 가게 되는데, 그 도시의 규모에 놀라고 갈 차려 입은 사람들을 부러워하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리진은 다시 라다크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비오는 날 또 만나자>/ 사토우치 아이 글 · 히로노 다카코 그림/ 한림/ 초1~

☆ 비오는 날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참 많군요. 마당으로 기어 나온 달팽이와 두꺼비, 풀잎 위 참깨구리랑 연못 속 올챙이들, 꽃 속에 숨어 있다 나온 호랑나비와 배추흰나비의 애벌레들, 축축하게 깨어나는 동물들 모습이 반가워요.

그 밖의 생태 그림책들

<가로수 밑에 꼭다지가 피었어요>/ 이태수 글 · 그림/ 우리교육/ 초2~

<개구리가 알을 낳았어>/ 이성실 글 · 이태수 그림/ 다섯수레/ 초1~

<겨울철 벌레를 찾아서>/ 미야타케 요리오 글 · 마츠오카 다츠히데 그림/ 한림/ 초1~

<나는 등그배미야>/ 김용택 글 · 신혜원 그림/ 푸른숲/ 초5~

<땅속 생물 이야기>/ 오오노 마사오 글 · 마쓰오카 다쓰히데 그림/ 진선/ 초1~

<비가 자란다>/ 도토리 기획 · 김시영 그림/ 보리/ 초2~

<살아 있는 모든 것은>/ 브라이언 멜로니 글 · 로버트 잉펜 그림/ 마루별/ 초3~

<선인장 호텔>/ 브렌다 기버슨 글 · 미간 로이드 그림/ 마루별/ 초2~

<소금이 온다>/ 도토리 기획 · 백남호 그림/ 보리/ 초2~

<열려라! 거미나라>/ 임문순 글 · 김승태 사진/ 지성사/ 초4~

5) 서로를 풍요롭게 하는 말! 말! 말

교사들이나 아이들이 흔히 쓰는 말들은 위·아래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많습니다. 말이 의식을 규정 하기도 하듯이 위계질서를 그대로 담고 있는 말들은 관계 또한 불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합 통통 인권생활수칙 9

9 단절이 아닌 소통을 위한 말로 바꾸기

일상에서 익숙하게 사용하는 말들을 찾아보고, 교사와 아이의 관계를 평등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말들로 바꿔 보자고요.

단절	소통
엄격	진지, 성실
검사	확인, 봐 주기
규제, 통제	약속에 따르기
지시, 시키다	상의, 할 수 있도록 돕다
허용	이해, 인정
아이들 관리	아이들 챙기기, 만나기
벌	상당, 합의
가르치다, 지도하다	나누다, 안내하다, 돕다, 서로 배우다
버릇없다	예의를 갖추자, 정성껏 대하자
야!	○○아(야), 애들아
말대꾸	자기 생각과 느낌을 표현함
~ 해, ~ 해라	~ 하자, ~ 하면 어떨까, ~ 하면 좋겠다
안 돼	내 생각에 그건 ~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다른 애들은 (잘)하는데 너는...	○○야, 한 번 해 보자. 어려움이 뭘지 얘기해 줄 수 있니? 함께 뭘 해보면 좋을까?

• 단절에 담긴 말들

: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짧고 간단하며 딱딱하다. 다음 말을 붙일 수가 없다.(대화의 단절) 무미 건조하다. 위압적이고 권위적이며, 일방적인 표현으로 동등하지 않은 관계를 드러낸다.

• 소통에 담긴 말들

: 아이를 존중하는 태도가 담긴 표현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 풀어 말하기 때문에 길어 진다. 부드럽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평등한 관계를 나타낸다.

2-3 교사와 교사

1) 경험과 경력, 나이의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기

- 해 봤은? 나 해 봤은. - 후배 교사의 제안을 “내가 해 봤더니 안 되더라.”며 일언지하에 잘라 버리는 선배 교사.
- 음매 기죽어! - 신입교사들은 아는 것이 없어서 무조건 배워야 한다고 여기거나 스스로 위축되는 후배교사. “어찌 말을 시작해야 할지”, “잘 몰라서...”
- 선배교사의 독재는 무죄? - 의사결정 과정에서 선배교사의 말이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는 후배교사, 충분한 설명보다는 후배교사가 이해하지 못할 때 답답해하거나 전체적인 논의에서는 소외시킨 채 부차적인 일만 시키는 선배교사.
- 공부방인가, 군대인가? - 식사, 술자리 등 일상에서 나이와 경력에 따른 위계질서가 그대로 드러날 때

교사들 사이에서 경험과 경력, 나이로 인해 차이가 생기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럼 이런 차이는 ‘다르더라도 괜찮아’라고 인정하면 되는 걸까요? 이럴 경우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차이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교사들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을 차이로만 바라볼 경우 누군가가 겪고 있는 차별과 부당함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과 동시에 그 이면에 작동하고 있는 차별의 구조를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공부방에서는 인권의 거울로 교사들 내부를 들여다보려는 시도는 별로 없었던 듯 해요. 위계질서나 차별은 공부방 외부나 아이들과 교사의 관계에서만 얘기되었지, 교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편함은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못했죠. 그러다보니 교사들 사이에 만들어진 위계질서를 어쩔 수 없는 구조로 받아들이거나, 문제제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위축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덮어 두는 것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결국 교사들 사이에서 소통은 사라지고 갈등은 눈덩이처럼 자꾸만 불어나겠지요. 누군가가 먼저 말 걸기를 시작해야 한다면, 지금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자, 그럼 경험과 경력, 나이의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쳐 볼까요.

함 통 통 인권생활수칙 10

8 속마음 털어놓기

우선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대화가 아닐까요. 하지만 살다보면 대화만큼 시작하기 힘든 것도 없습니

다. 왜 그럴까요? 공부방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교사들 내의 위계질서를 이야기 하는 것이 마치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비난하거나 평가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다는 우려와 오히려 이런 문제를 부차적인 문제로만 여기면서 골치 아파하는 분위기가 사람들의 입을 닫게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문제를 인식하는 교사에게만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부방 내 위계질서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위계질서를 없애기 위한 내부 규칙을 만들 수도 있겠죠. 또 교사들 내부 교육에 이런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호칭을 평등하게

특히 실무교사와 자원교사 사이에는 경험과 경력, 나이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다보니 보통 아이들 앞에서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만 교사들끼리 있을 경우에는 편하게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칭에서 위·아래가 뚜렷하고, 어렸을 적부터 윗사람에게 경어를 사용하는 것을 예의라고 배워온 사회에서 호칭은 당연하게 정해지기도 하는데요. 호칭을 정하거나 존댓말/반말을 사용하기 전에 서로를 존중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부르는 게 좋은지 이야기 해 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 관계가 평등해지지는 않겠지만 당연하게 위·아래의 관계를 규정짓지 않고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교사들은 평등한 관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2) 사람 vs 사람으로 만나기

● 다음은 누구의 일일까요?

대외 활동 : 남자 / 교사대표 : 남자 / 아이들 챙기기 : 여자 / 학부모 모임에서 간식 준비하기 : 여자

짜미고 장식하기 : 여자 / 무거운 짐 나르기 : 남자 / 식사준비 : 여자 / 뒤통지 : 여자

청소 : 여자 / 설거지 : 여자

참 어이없는 구분인데요. 실제 공부방에서 활동하다보면 성에 따라 역할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
다. 물론 어떤 교사에게는 자신이 더 원해서 그리고 더 잘 할 수 있는 일이어서 선택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위에서 제시한 일들은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이지 취사선택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밥을 먹
고, 청소를 하고, 사람을 만나거나 행사를 준비하는 것은 공부방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이기 때
문입니다. 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르며, 처음부터 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터득해야 하
는 일들이기에 성의 구분 없이 공평하게 나누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할 통통 인권생활수칙 11

♀ 해야 하는 일 확인목록 만들기

일을 하다보면 그동안 역할을 나눴던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또 자기가 익숙한 것은 잘 하는데,
다른 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기도 하죠. 그러
다보니 하는 사람만 하게 되면서 지치거나, 자칫하면 잔소리가 돼 이야기하는 교사나 듣는 교사 모두
불쾌해지기도 합니다. ‘그냥 내가 하고 말지’ 또는 ‘아무도 하지 않으니 나도 하지 말아야지,’ 하고 개인
적인 일로 덮어둔다면 고정적인 성역할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가지 방법은 확인목록을 만드는 것인데요. 공부방의 자리마다에서 해야
하는 일들을 요목조목 적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할 때 주로 그릇만 닦아 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확인목록에는 행주 빨기, 설거지 한 뒤 주변 물기 닦기, 수세미 거품 빼기, 가스레인
지 닦기 등 꼼꼼히 해야 하는 일들을 적어 놓는 거죠. 교실이나 사무실, 화장실 등에서도 살펴야 하는
일들을 교사들이 모여서 함께 목록으로 만들어 봐요. 만드는 과정 자체가 성 평등 교육이 될 수 있으
며, 서로 이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가면서 고정 관념도 깨질 수 있답니다. 마찬가지로
행사나 다른 활동을 하기 전에도 확인목록을 만들어서 역할을 나눈다면 한층 평등한 활동으로 다가설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남자 체면에”, “여자 몸으로 어떻게” 하는 이야기는 쏙 들어가겠죠.

♀♀ 성폭력반대위원회⁶⁾ 두기

성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보면 남성과 여성이 서로 적이 되어버리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서로를 억압하고 있는 굴레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굴레를 벗어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 먼저 되어야겠죠.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런 고민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익숙한 대로 흘러가버리죠. 또 성차별에 대한 문제제기가 개인의 몫으로만 남겨진다면 이런 이야기를 일상에서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성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예민하다거나 까다로운 사람 취급하는 게 사회 분위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공부방에서의 성 평등 고민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고, 내규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통해 성 평등 교육을 기획하고 공부방 차원에서 논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반성폭력 내규를 만드는 과정에서 성폭력을 어떻게 정의 내릴지, 실제 성차별 등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성 평등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죠.

♀♀♀ 양육 책임 등 함께 나누기

여성 실무교사나 자원교사들은 교사라는 정체성에 더해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사회적으로 여성에게만 강요되어 온 여러 가지 책임들을 고스란히 공부방에서도 안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육 문제입니다. 아직 공공보육이 잘 안되어 있는 우리사회에서 보육은 여전히 한 가정의 책임이며, 그 안에서도 여성의 몫으로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방 관련 워크숍을 하더라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 교사의 경우 참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워크숍이나 행사 동안 놀이방을 운영하는 곳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남성 실무자들도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아이를 키우는 일에 책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공부방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2002년에 성폭력반대위원회를 구성하고, 내규를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지만 내규를 만드는 과정에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교육도 진행하면서 일상에서 여성주의를 실천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도움글 · 자료 3-4 인권운동사랑방 <성차별 금지 및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내규>

3) 모두 참여하는 왓자지껄 공부방

공부방에서 회의 진행은 대부분 실무교사의 몫인 경우가 많습니다. 설사 실무교사가 회의 진행을 하지 않더라도, 회의 진행과정에서 발언권을 많이 가지거나 의사결정에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물론 똑같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며, 역할을 나눌 때에도 실무교사가 많은 부분을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공부방이 실무교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 공부방에서 활동하는 자원교사들의 활동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것도 실무교사가 공부방의 운영과 교육에서 많은 부분을 책임지게 하는 까닭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사들 가운데는 수업 외에 공부방의 운영이나 다른 활동들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구조가 정착되다 보니 전체적인 논의는 실무교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부차적인 역할만 자원교사에게 넘기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특히 전체 회의에서 논의의 주제들이나 정보들이 자원교사들에게는 제한되기도 하고, 실무교사 차원에서 이미 결정된 것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하죠. 자원교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싶어도 회의 안전을 그 날 알기 때문에 미리 고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교사들의 참여가 부족하다면 왜 그런지, 소통이 잘 안된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꼼꼼히 살펴야겠죠. 또한 모든 교사들이 논의와 결정 과정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함 통 통 인권생활수칙 12

Ⅷ 안전은 미리 미리 알려줘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지면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논의는 짧게 하면서 실질적인 업무를 나누는 것에 회의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고민을 깊이 못한 교사들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 없이 부차적인 일만을 하게 되고, 결국 소진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죠. 물론 미리 안전을 공지해도 고민을 해 오는 것은 교사의 자발성에 기댈 수밖에 없지만, 아예 그 통로를 막아 놓는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따라서 회의를 하기 전에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안전을 알리고, 회의 전이라도 삼삼오오 모여 고민을 나눈다면 회의 시간이 길지 않더라도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겠지요.

ⅧⅧ 역할을 나눠요

공부방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초기 논의 준비는 실무교사의 몫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에 쫓기다 보면 논의는 소홀하게 되죠. 전체적인 조율은 실무교사의 몫이라고 해도 논의를 준비하거나 공부방 운영에 필요한 역할들을 다른 교사들과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실무교사가 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고, 그 중 다른 교사들과 나눌 수 있는 것들은 쪼개 책임을 분산시키는 것도 교사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4) 학벌 없는 공부방

우리 사회에서 학벌은 학연을 형성하고, 막강한 권력으로 작동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자연스럽게 대학교와 학과, 학번을 확인한 후에 “누구 알겠네”라며 연줄을 형성하고, 그렇게 맺어진 관계를 통해 한결 수월하게 적응하고, 일을 해 나갑니다.

공부방 차원에서 학력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공교롭게도 찾아오는 자원교사들의 대부분이 대학생이며, 같은 학교 출신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공부방에서도 처음 만나는 교사들과 인사를 할 경우 ‘몇 학번인지’, ‘어느 학교 무슨 과인지’ 너무나 자연스러운 질문을 하죠. 하지만 교사들 중 대학생이 아닌 사람들도 있으며, 그 중에는 대학교를 아예 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무슨 대학이며, 몇 학번인지, 그리고 무슨 과를 다니는지 공부방에서 관계를 맺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는 아닙니다. 물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자연스럽게 학교 이야기가 나오고,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 오고갈 수는 있지만 꼭 확인해야 하는 정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합 통통 인권생활수칙 13

⑧ “어느 대학, 무슨 과, 몇 학번”은 생략하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는 자신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대학을 다니는지, 직장은 어디인지,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기도 하고, 자신이 먼저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사회에서 이러한 정보들은 그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로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위계를 만들어 냅니다. 학벌도 마찬가지인데요. 공부방에서도 대학생 VS 비대학생과 소위 ‘명문대’ VS ‘삼류대’로 분류되면서 생기는 갈등과 위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정말 교사들과 친해지고 싶다면 출신 학교나 학번, 학과를 물어볼 것이 아니라 공부방에서 왜 활동하게 되었는지, 최근에 본 영화 중 괜찮은 건 뭔지 등 개인적인 생각과 느낌을 나눌 수 있는 질문으로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⑧⑧ 이것만은 피해요

- 교사들끼리 또는 학생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어느 학교 누구입니다.” 하고 말하지 않기
- 대학을 다닐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기. 예를 들어 “몇 학번이세요?”
- 소위 ‘명문대’ 출신이 아니라고 위축되지 않기. 공부방 자원교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굿~~
- 같은 학교 출신의 교사들이 많을 때라도 함께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학교 주제로 이야기 몰아가지 않기
- 대화 속에서 영어나 어려운 표현들 쓰지 않기

3 토 음 글 · 자 료

3-1 기린 언어 배워 보실래요?*)

- 진정한 내 모습을 찾는 지도, 비폭력대화

아침(평화인권연대 활동가)

들어가며

비폭력 대화를 배우고 나누기 시작한지 햇수로 3년이 되어갑니다. 감정에 예민하고 솔직하게 반응하는 편이라 속상하고 우울하고 화나고 미운 감정들을 못견뎌했었는데 그것들이 저에게 어떤 중요한 걸 알려준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의 느낌들은 아주 솔직하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는 엄청난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것이 어떤 것이든 불안도, 기쁨도, 분노도, 행복도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는 지도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훈련이 필요하지만 제가 맞춘 그 황홀감을 좀 더 많은 곳에서 나누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하여 예전의 썼던 글로 비폭력 대화의 소개를 대신합니다.

비폭력 대화의 목적

비폭력 대화를 하다보면 ① 적대감 없이 상대를 바라보며 긴밀하고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고, ② 나와 상대가 원하는 것을 모두 만족시키며 ③ 즐겁게 만든다. 비폭력 대화는 간단한 모델을 따라 말을 하게 되지만 그 형식에 깊은 가치와 성찰을 담고 있다. 외국어를 배울 때처럼 어색하더라도 꾸준히 연습을 하고 사용을 하다보면 분명 평화를 만들어내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비폭력 대화 워크숍을 할 때 기린을 상징으로 쓴다. 기린은 초식동물이라 비교적 평화롭게 살고, 큰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눈앞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볼 수 있고, 큰 키를 유지하기 위해 육상동물 중에서 가장 큰 심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슴에서 나오는 삶의 언어라고도 불리는 비폭력 대화의 상징으로 삼게 되었다. 기린은 사자 등을 뒷발로 차서 나가떨어지게 만든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기린과 대비되는 폭력적인 대화를 하는 상징으로 자칼(Jackal)을 쓰는데 문화에 따라 뱀이나 다른 야비하다거나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상징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단지 워크숍을 진행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한 상징에 불과하다.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

수렵, 채집의 공동체 사회에서는 아마도 우리의 본성과 맞는 비폭력 대화를 사용해 왔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나 농경사회가 시작이 되는 8천 년 전부터 인류는 계급사회를 이루었고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다루기 용이하도록 말을 만들어냈다. 노예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인식하고 요구하게 되면 계급사회가 유지되기 힘들다. 규율을 정하고 규율에 맞는 행동을 하면 칭찬을 하고 자신의 필요를 주장을 하면 벌을 주는 방식으로 노예들을 길들여왔다. 가끔은 폭력을 사용하면서 폭력적인 말하기를 계속해왔다. 다른 사람들에게 겁을 주거나 수치심을 느끼도록 만드는 이런 말하는 방식은 수천 년 동안 피지배계급뿐 아니라 지배계급들 역시 불행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 도덕주의적 판단(moralistic judgement)

7) 전쟁없는세상 소식지 13호에 실렸던 글입니다.

도덕주의적 판단은 자신과 다른 것에 대해서 틀리다거나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나아가 벌을 주어야 한다는 식의 생각도 한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고 틀린 것은 나쁜 것이고 그러니까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식의 사고방식이다. 우리는 흔히 ‘게으름뱅이’, ‘고집쟁이’, ‘마초’ 등의 꼬리표를 단다. 꼬리표는 비폭력 대화의 관찰하기에서 말했듯이 다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을 다른 이유 없이 고용하려들지 않는 행위를 한 사람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만 한다면 그 사람의 다른 변화가능성과 진정성을 외면하게 된다. 비폭력 대화에서는 도덕주의적 판단 대신 가치판단(value judgement)을 권하고 있다. 가치판단은 우리 삶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바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다.

● 비교하기

어릴 적 부모님이나 선생님들로부터 가장 듣기 싫었던 말들 중에 하나가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었다. 누구는 전교 1등인데, 누구는 달리기를 잘하는데 ... 등의 말은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받기보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만 존재 가치를 찾으려 하는 것이다. 항상 불안하고 자신에 대한 연민도 상실하게 한다.

● 책임을 부정하기

책임을 부정하는 것 역시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의 한 형태이다. 우리는 흔히 ‘~해야만 한다.’거나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우리의 느낌과 욕구에서 벗어난 행동을 정당화시키려한다. 위계적인 사회에서는 특히나 스스로 선택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기 때문에 이런 습관은 더 강화된다. 예를 들어 막연하게 해야만 하니까 사무실을 청소한다고 말하기보다 사무실을 청소했을 때의 충족되는 욕구(need)에 충실하다면 ‘청결한 공간을 원하기 때문에 청소를 하기로 선택한다.’고 하는 것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일 것이다.

● 강요하기

강요하는 것 역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만들게 된다. 강요를 할 경우 상대방은 두려움이나 죄책감이나 수치심에서 복종을 하거나 반항을 하는 두 가지의 경우만을 얻을 수 있다. 강요에는 거절할 경우 벌을 내릴 것이라는 암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행동에 대한 보상과 처벌에 대한 것 역시 우리의 삶을 소외시킨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보상이나 처벌 때문이라면 삶은 더할 나위 없이 각박할 것이다. 진정 변화를 원한다면 큰 용기가 필요할 것 같지만, 우선은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 것이 수단이나 방법인지 정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need)인지 찾아보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비폭력 대화의 모델

- 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행동을 관찰하고,
- ② 관찰한 바에 대한 우리의 느낌을 표현하고,
- ③ 그러한 느낌이 들게 하는 욕구, 가치관, 소망 사항을 찾아내고,
- ④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부탁한다.

당신이 ~~~ 했을 때, 나는 ~~~을 느낀다. 왜냐하면 ~~~가 원(필요, 중요)했기 때문이다. ~~~ 해줄 수 있나요?(내 얘기가 어떻게 들려요?)

① 관찰

여기서 관찰이란 우리의 판단과 평가를 멈추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네가 나를 무시했을 때’가 아니라 ‘네가 나의 인사를 받지 않고 그냥 지나쳐갔을 때’라고 말하는 것이다. 워크숍을 진행하다보면 꼭 주의를 주어도 무시라는 것이 관찰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많다. ‘무시했을 때’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이전에 이미 머

릿속으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무시하려는 마음이 상대에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를 비폭력 대화의 목적에 맞게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판단을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

② 느낌

여기서 느낌이란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말한다. 조심해야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무시 받은 기분, 별 받은 기분 등은 상대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판단일 뿐이다. 느낌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우리의 욕구가 충족이 되었을 때와 충족되지 못했을 때이다. 예를 들어 친구를 보고 싶었을 때 만나게 되면 기쁘고, 반갑고,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다. 하지만 만나지 못하게 되면 슬프고, 외롭고, 짜증나고, 화날 수 있다. 한국말의 어순에서는 느낌이 먼저 나오는 것이 어색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오랜 습성 상 자신이 진정 원했던 욕구를 찾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느낌을 통해 알아낸다. 느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알람과 같은 존재이다. 우리에게 영양분이 필요할 때 배가 곪은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이 되었거나 충족이 되지 않았을 때의 느낌이 그런 역할을 한다.

③ 필요, 욕구(Need)

자신이 원했던 바를 표현한다. 이때 원했던 것을 깊게 생각해야한다. 수단이나 방법과 구분이 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한다. 깨끗한 공기, 충분한 음식 등과 자율성, 미, 재미, 휴식, 존중, 격려 등이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느낌의 원인은 바로 자신이 원했던 것, 바로 자신의 욕구(need)에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는 자라오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아본 일이 드물다. 진정 원했던 것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충족시킬 가능성도 커진다.

④ 부탁

부탁은 강요와 구별이 된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말 그대로 상대 혹은 자신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다. 부탁에는 연결부탁과 행동부탁이 있다. 연결부탁은 대화에 상대를 초대하는 것으로 ‘내가 말한 것이 어떻게 들려? 내 말을 들으니 너의 느낌은 어때?’ 등으로 말할 수 있다. 혹은 바로 구체적으로 상대에게 어떤 행동 등을 부탁할 수 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 새로 시작한 수업에서 : 강의실에 들어서자 나의 별칭을 부르며 인사를 했을 때 나는 기쁘고 고마웠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시작한 이 수업의 참가자들로부터 환영받고 싶었거든요.

▷ 직장에서 : 나에게 지난 회의 자료에 대한 복사를 부탁했을 때, 나는 귀찮고 걱정이 되었어요. 나의 휴식시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거든요. 돌아가면서 복사당번을 정하는 건 어떨까요?

▷ 집에서 가족들에게 : 푹푹 말린 양말을 화장실 입구에서 발견했을 때 나는 화가 나요. 좀 더 깨끗한 집을 원하거든요. 그 양말을 펴서 세탁기에 넣어주시겠어요?

마치며

보기엔 쉬워 보여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 습관을 들인 말하는 법을 바꾸기란 당연히 어렵겠지요. 하지만 외국어를 모국어처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것처럼 꾸준히 연습한다면 더 많은 마음의 평화와 관계의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함께 하는 친구가 있다면 더 좋겠지요. 좀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월간 평화연대의 아침의 지면특강이나 www.krncv.org 혹은 www.cncv.org를 참조하세요.

3-2 “아이들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⁸⁾

새해에는 아이들의 인권이 지켜지길

이미나(두리하나공부방 실무교사)

공부방 초등부 3·4학년 아이들과 함께 지난 가을학기부터 ‘인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대부분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인권’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대요. 수업 소개를 하는 날, “인권 공부를 하며 어린이들의 권리를 알아가 보자”고 했더니,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게 뭐예요? 인권? ...이 뭐하는 거예요?”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인권 수업은 아이들이 쉼기는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깥놀이나 미술처럼 아주 신나하기까지는 않더라도, 주마다 ‘오늘은 어떤 권리를 배울지’ 무척 궁금해 하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종종 “야, 우리 인권에서 배웠잖아.”, “우리한테도 권리가 있다고요!” 하는 말들을 듣게 되는군요.

아이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새록새록 알아가는 일에 재미를 느끼고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그만큼 어린이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증하기도 한다고 봅니다.

집에서 자주 맞고 혼나 예민해진 꽃님이

어제 3~5학년 아이들 여럿이 한꺼번에 공부 시간에 늦었습니다. 어쩌다 늦게 되었는지 물었더니, “놀다가 늦었다”며 대수롭지 않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 꽃님이가 유독 상한 감정을 누르고 있는 표정입니다. 또 다른 아이들은 무언가 감추는 듯 서로 눈치를 주고받는 모습도 보였지요. 다시 물으니, 같이 놀다가 싸움이 일어나 늦게 되었다는군요. 꽃님이가 무슨 얘기 끝에 같이 있던 다른 아이의 욕을 했고, 그것이 발단이 되어 그 ‘다른 아이’를 포함한 아이들이 꽃님과 ‘맞장을 폈다’는 겁니다. 꽃님이가 원인을 만들긴 했지만, 여럿이 한 아이를 상대하며 싸우기 싫다는 아이를 몰아세워 싸우도록 했다는 것,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과 말투로 ‘그럴 만해서 그랬다’는 듯 설명하는 아이들을 보며, 이 날 수업은 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공부를 해야 했으니까요.

사실 꽃님은 교사가 보기에도 원인 제공을 많이 하는 아이입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내고, 자기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는 규칙이나 약속도 곧잘 어기지요. 그런 모습을 다른 친구들이 좋아할 리 없으니 화낼 일도 더 많이 생기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공부방에는 이렇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도덕성과 사회성을 길러야 한다면보다는 먼저 심리·정서적인 치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꽃님과 같은 아이들이 친구들과 바람직한 방식으로 소통하며 사귄 준비가 될 때까지 무작정 관계 맺기를 미뤄둘 수는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함께 살아가는 친구들과 관계에서 새로운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나아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되도록’ 원만히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겠지요. 꽃님과 같이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에게 무리한 기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다른 친구들이 이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좀더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도와야 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날 우리는 이야기 나누며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저마다 다른 생김새와 성격들을 가졌듯, 저마다 다른 장점과 잘 하는 것들이 있듯, 또 저마다 다른 약점

8) 이 글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오름> 제38호에 실린 글입니다.

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다. 꽃님이가 다른 친구들보다 화를 더 참지 못하는 것은 그 부분이 꽃님한테 특히 약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일 것 같다. 누구든 약하고 힘든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놀리거나 싸우는 대신 ‘그래서 그러는가보다’ 하고 이해하면서 달라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보듬어주고, 도와주어야 하지 않을까.”

앞의 일로 이야기 나눌 때, 친구들은 아까 일과 함께 꽃님에게 평소엔 불만스러운 것들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렇게 기분 나쁜 일들이 쌓여, 그 때 참고 싶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엔 꽃님에게 물었습니다. “꽃님이 네가 정말 그랬니?” 꽃님은 그렇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야?” 한참 가만히 있던 꽃님이 머뭇거리며 입을 뗍니다. “솔직히, 집에서도 만날 엄마한테 맞고, 오빠한테도 맞고, ... 친구들도 기분 나쁘게 하는데...스트레스도 쌓이고요...” 그리고 나서 서로 왔다 갔다 이야기하며 마음들이 풀려갈 때, 꽃님도 말문이 터진 듯 목소리도 높아집니다. “우리 엄마 이상해요. 내가 조금 잘못된 걸 가지고 오빠가 때려서 맞고 울고 있으면, 엄마는 ‘넌 왜 징징 짜냐?’고 혼내고, ‘오빠네 왜 오빠한테 대드냐!’고 또 때리고...” “우리 엄마도 그래요.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막 우리한테 화풀이해요. 우리가 잘못된 것도 없는데, 매 가지고 때리다가 쉬었다가 또 때리고...” 아이들 싸움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어느새 너도나도 어른들을 성토하는 모양으로 바뀌어 활기를 띠어 버렸습니다.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선생님에게 상처받는 가을이

이 이야기 자리에서, 가을이는 처음에 교사에 대해 경계하고 방어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생님이 공부 시간에 늦은 것에 대해 상황 설명을 들은 것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 같으니 어떤 질책과 훈계가 나올까, 듣지 않겠다는 의지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언젠가부터 가을이와 진지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 아이가 입을 닫아버리거나 무턱대고 화를 내는 모습에서 마음을 담아전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날도 또 다시 그런 모습이 느껴졌지요.

그런데 그러다 가을이도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땠고? 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혼나고, 형한테 맞고, 게다가 학교 선생님한테...” 5학년인 가을이는 지난 한 해 학교생활을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담임선생님한테 혼나거나 싫은 소리를 듣지 않는 날이 없어 보였지요. 한 번은 ‘자기 마음 그리기’를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너는 바보야.”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머리가 복잡하고 어지럽다고요. 언젠가 글쓰기 시간에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참 싫다. 그 이유는 화풀이 상대를 나로 골라서 때리기 때문이다. 학교 쉬는 시간에 애들이 떠들어서 선생님이 화났다. 그래서 선생님이 조용히 시키고 공부를 하는데, 애들 전부 다 선생님을 보고 있는데, 선생님이랑 나랑 눈이 마주쳐서 선생님이 “왜 책 안 봐!”라고 해서 애들이 갑자기 책을 봤다. 선생님이 애들을 보고 나서, 책을 내 머리로 내려찍고, 나는 뒤로 가서 서서 공부를 하였다. ... 난 이것이 제일 분하고, 선생님이 싫었다.」 아이 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편을 더 쓰겠다고 해서 ‘선생님은 이상하다’로 시작하는 새 글 한 편을 공책 한 바닥 꼭 채워 썼더랬지요.

가을이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한테서도, 또 교생 실습을 다녀온 자원교사나 도서관에서 만나는 어머니들에게서도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학교 선생님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아이와 아이 부모를 비난한다든지, 함부로 말하거나 아무데나 때린다든지, 학부모에게 물질과 봉사를 요구하고 그에 따라 아이들을 차별한다든지 하는 교사들의 이야기는 전해 듣고만 있어도 아찔할 때가 많습니다.

잠깐만 둘러보아도 우리 아이들의 인권 현실은 척박하게만 느껴집니다. 새해를 열며, 우리 아이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알아가고 찾아갈 수 있는 ‘당당한 힘’이 점점 자라나기를, 이 아이들과 함께 내가, 또 우리 어른들이 점점 더 ‘인권 감수성’에 민감해져 갈 수 있기를, 우리 사회가 이를 위한 토대를 힘써 넓혀가기를,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한 발짝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3-3 체벌 없이 기를 수 있다⁹⁾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좋은 어른, 특히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부모가 되는 법은 왜 배우지 않나요? 차를 몰기 위해 운전を 배우듯이 아이를 잘 기르는 법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아이를 잘 기르는데 한 가지 왕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나 아이를 ‘때리는 것’ 말고 선택할 방법이 있다면, 아이에게 기대가 큰 만큼 부모 자신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와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사람들과 ‘체벌에 의존하지 않고 아이를 기를 수 있다’는 생각과 행동을 함께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9) 이 글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에서 2002년에 만든 자료로, 소개된 프로그램은 국제아동복지회(Save the Children) 영국본부가 2000년에 발행한 ‘We can Work it out-Parenting with confidence’에 기초한 것입니다.

생각해보기

지하철에서 아이가 뛰어다니며 장난을 친다.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소리를 친다.

“종호야! 이런 데서 뛰어다니면 안 된다고 했지?”

그리고 아이를 붙잡아 엉덩이를 철썩 철썩 때린다. 그여자 어머니로 보이는 사람이 말한다.

“여보! 뭐 이런 일 가지고 애를 때리고 그래요. 말로 하면 되지.”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한마디씩 한다.

“아니 이런 일이라니?”

제 아이 엉덩이 아픈 줄은 알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줄은 모르나 보지?”

“맞아. 요즘 부모들은 제 자식 귀한 줄만 알지, 공공도덕을 가르칠 생각은 전혀 안 해.

음식점에 가 봐. 여기 저기 뛰어다니는 애들 투성인데, 그여자 말라는 말밖에 안 한다니까.

그렇게 오냐오냐 키우면 나중에 뭐가 되겠어?”

오빠랑 싸워서 엄마한테 혼났다. 오빠가 먼저 잘못을 했는데도 엄마는 오빠랑 나를 똑같이 혼내었다.

그래서 난 오빠가 먼저 돼지라고 놀렸고 내 장난감을 망쳐놓았다고 말썽드렸는데, 엄마는 대든다며 나를 더 때리었다. 너무 아파다. 종아리가 빨갱게 부어올랐다. 내일 선아 생일잔치에 치마를 입고 가려고 했는데 그럴 수 없을 것 같다.

난 빨리 커서 어른이 되고 싶다. 그러면 오빠랑 싸워도 맞지 않아도 되고,

또 치마도 맘대로 입을 수 있을 테니까.

확실히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자란 아이들이 버릇이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 애가 분명히 잘못을 해서 매를 들려고 하면 어김없이 감싸주는 통에 아이를 제대로 혼낼 수가 없어. 어머니님 마음은 이해하지만, 아이들은 아직 옳고 그른 것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말로만 해서 아이를 가르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때려야 할 이유가 확실하다면 때리면서 키워야 아이가 바로 자랄 수 있지.

아이에 대한 체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에 대한 체벌은 아이의 '잘못'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고, 아이에 대한 '교육과 훈육'이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때리는 이유와 상황이야 아주 다양하겠지만 어른들은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 때리면 버릇이 없어져요.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잘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규칙을 지키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야지요. 체벌이 없으면 제멋대로가
 될 거예요.

나도 내 부모님한테 맞고 자랐지만
 난 멀쩡하게 잘 자랐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내 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이의 안전 때문이지요.
 애 키워 보세요. 위험한 물건 만지고,
 찾길로 뛰어들고...
 따끔하게 야단쳐야 위험한
 일을 안 하지요.

아이를 어떻게
 기르느냐는 내 집안 문제지,
 내 자식 내가 때리는데 국가나 사회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예요.

? 한번 더 생각해보기 ??

‘교육’이 될까요?

“날 때린다고 해서 나는 바뀌지 않아요.”

“선생님께선 저희가 맞아야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시험도 잘 본다고 하세요.

그런데 저는 교실에 앉아있으면 무서워요.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게 무서워요. 선생님이 때릴까봐 조마조마해요.

저는 그런 식으로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설사 체벌이 교육적 효과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체벌이 아동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바꿀 수 있을까요? 체벌이 아이의 ‘즉각적인 순종’을 받는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끼고 계시겠지요? 하지만 체벌 외에 다른 방법을 써보지 않았다면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체벌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할 근거는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해서 부모와 교사에게 체벌이 ‘장기적’ 효과까지 보장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각종 조사에 따르면 어린 아이는 맞은 직후에는 성인의 바람대로 할 수 있지만, 왜 맞았는지를 자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 맞을 것이라는 위협이 눈앞에 닥칠 때에만 잘못된 행동을 삼갑니다. 즉, 체벌은 어른이 보기에 잘못된 행동을 잠시 멈추게 할 수는 있겠지만 아동이 바람직하거나 대안적인 행동을 배우도록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흔히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때린다고 합니다. 성공적인 교육이란 무엇입니까? 아이들은 탐구와 질문을 통해 배웁니다. 아이들에게는 실험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모험을 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체벌로 인한 공포가 아이들을 ‘얌전’ 하게 만들고 있다면, 성공적인 교육을 위한 조건들은 사장되는 것이 아닐까요?

아이 가 정말 아무렇지 않을까요?

“아파요, 무서워요, 화나요,

사랑 받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깜짝 놀라요, 외로워요,

슬퍼요, 혼자인 것 같아요, 두려워요, 엉망이에요, 위협적이에요,

짜증나요, 나빠요, 몸이 상해요, 증오스러워요, 불행해요, 끔찍해요, 창피해요, 혼란스러워요, 당황스러워요, 유감이에요,

버림받은 것 같아요, 실망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비참해요,

가슴이 찢어져요, 우울해요, 충격적이에요, 날 싫어하는 것 같아요.”

국제아동복지회 영국본부는 아이들에게 체벌에 대한 느낌을 조사했습니다. 나온 반응은 앞의 예에서 보이듯 하나 같이 부정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체벌 후에 ‘뭔가를 제대로 알게 됐다’거나 ‘잘못을 느꼈다’라는 식의 어른들이 기대하는 반응은 전혀 없었습니다.

체벌의 효과성은 체벌이 반복될수록 줄어드는 반면에 체벌의 강도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자주 더 세게 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교사는 체벌에 둔감해지고, 돌아오는 효과가 미미해질수록 더 강하게 체벌하게 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체벌은 아동의 신체와 정신에 해를 끼칩니다.

체벌은 아이의 인권을 침해합니다.

“아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렇니까 우리는 때리는 것이 아니라 말로 가르쳐야합니다”

체벌은 “아이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간”이라는 사실과 모순됩니다. 우리는 성인에게 대해서라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 즉 바람직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때리는 행위를 아이들에 대해서만은 용납하고 정당화합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아동’은 체벌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최후의 집단일 것입니다. 아내, 하인, 수인, 군인, 노예 등에 대한 체벌이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용납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현대에 와서 그런 행위는 (현실에선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불법적’인 것입니다. 오직 아동에 대해서만 우리는 여전히 같은 인간 존재로 보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어른들은 ‘사랑의 때’로 체벌을 지칭할 때가 많습니다. 아동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취하는 ‘경미한 체벌’은 비난받아야 할 ‘심각한 폭력’과는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어른들은 체벌을 폭력과 연결시키는 걸 원하지 않기에 체벌과 아동학대를 애써 구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경미한 체벌과 심각한 학대를 무엇으로 구분하지요? 다칠 만큼, 죽을 만큼 때리는 경우가 아니면 경미한 체벌로 용인될 수 있는 것인가요? 경미한 것이든, 심각한 것이든, 체벌을 행하는 어른들에게는 ‘성인은 아동을 신체적으로 해칠 권리가 있으며, 그런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 된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경미한 것과 심각한 것을 구분하는 것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동을 바로잡기 위한 폭력과 아동을 해치기 위한 폭력을 구분하는 일, 이성적으로 행하는 폭력과 이성을 잃고 무차별적으로 행하는 폭력을 구분하는 일은 어른에게겐 위안이 될지 모르나 ‘때’를 통한 교정의 대상인 아동에게는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비참함일 뿐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인권조약)은 모든 형태의 신체적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19조), 아동에 대한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37조). 또한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8조 2항). 특히 아동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해 정당한 비중이 부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2조). 그러나 체벌은 아동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고,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지도하려 들기보다는 아동을 제압하고 통제하려 듭니다.

아동 체벌은 아동권리협약을 넘어서서 모든 국제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비차별 원칙과도 맞지 않습니다. 성인이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듯이 아동에게도 그런 보호를 받을 기본적 인권이 있습니다.

함께 해 보기

0. 말 걸기

- ★ 나와 아이를 소개해 봅시다.
- ★★ 이번 주에 나에게 일어난 기뻐던 일, 즐거웠던 일 등을 나눠봅시다.

1. 아이의 ‘못마땅한’ 행동

- ★ 나는 아이들의 어떤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는지 써봅시다.
- 【보기】 먹을 것을 던진다. 너무 숫기가 없다. 잘 싸운다. 욕심이 많다. 다른 사람을 때린다. 욕을 한다. 말대꾸한다.

- ★★ 내가 기록한 목록 중에 10살 아이에게는 용납할 수 없지만 3살 아이에게는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또 남자아이에게는 용납되지만 여자아이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있나요? 혹은 그 반대의 경우가 있나요?

2. 우리가 아이들의 ‘못마땅한’ 행동에 부정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 ‘못마땅한’ 아이들의 행동에 어른이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는 등 부정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 거리나 가게 등에서 어른들이 애들에게 화내는 것을 보고 들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부모, 아이, 주변사람들 등의 역할을 정해 역할극을 해 봅시다.

- ★★★ 극 중 부모가 한 행동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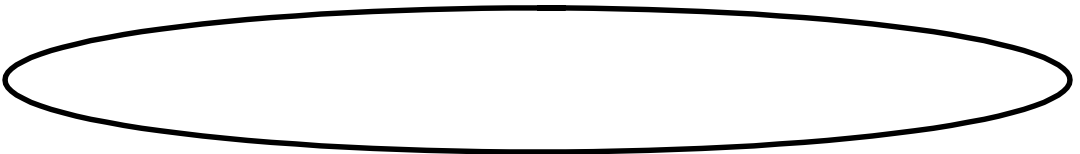
	말	몸짓	표정	행동
보기	입닥쳐	엉덩이에 손이 간다	인상을 쓴다	때린다
1				
2				

★★★★ 이제 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나만이 보는 기록입니다. 내가 아이의 ‘못마땅한’ 행동에 대해 주로 하는 부정적인 방식은 무엇이 있나요?

말	몸짓	표정	행동

3. 마음에 드는 행동

★ 우리 아이에게서 보고 싶은 행동 또는 마음에 드는 행동을 기록해 봅시다.



★★ 우리는 바쁠 때 아이가 ‘좋은’ 또는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4. 아이들이 좋은 행동을 배우도록 부모는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 아이의 ‘좋은’ 혹은 ‘마음에 드는’ 행동을 볼 때 긍정적으로 대하는 방식에는 무엇이 있나요?

	말	몸짓	표정	행동
보기	잘 했어. 철수랑 장난감을 같이 갖고 노네	감탄하며 박수를 친다	웃는다	머리를 쓰다듬어준다
1				
2				
3				

5. 대화하자!

- ▶ 아이에게 짧고 분명하게 말한다.
- ▶ 한 번에 한 가지만 요청한다.
- ▶ 부모가 원하는 아이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한다.
- ▶ 아이의 연령과 능력을 고려하여 부모의 기대는 현실적인 것이어야 한다.
- ▶ ‘하지 말라’ 보다는 ‘하라’는 요청을 하라.
- ▶ 공손하게 요청하라.
- ▶ 나중에 벌주겠다고 위협하지 말라. 예를 들어 ‘너, 아빠가 집에 오시면’

- ▶ ‘--하면’ ‘--할게’라고 표현하라.

예를 들어 ‘이빨을 닦고 나면, 동화책을 읽어줄게’, ‘장난감을 치우고 나면 네가 좋아하는 TV를 볼 수 있어’

6. 왜 내가 요청한대로 아이가 따르지 않을까?

아이가 부모가 요청하는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 ▶ 아이 키에 맞춰 무릎을 꿇거나 앉아서.
- ▶ 아이의 어깨나 팔을 부드럽게 안고 말해라.
- ▶ 아이의 눈을 똑바로 보라.
- ▶ 분명하고 확실한 목소리로 말해라.
- ▶ 말할 때 심각한 표정을 지어라.
- ▶ 아이가 당신을 무시한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당신을 지지하게 한다.
- ▶ 당신이 아이의 말을 경청하듯이 당신도 경청을 원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한다.
- ▶ 아이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고 아이의 견해를 신중하게 고려하라.
- ▶ 가능하다면 아이에게 선택의 여지를 줘라.
- ▶ 협상하라.
- ▶ 아이에게 과제를 완수할 충분한 기회를 줘라.
- ▶ 아이가 협력했을 때 칭찬하라. 또는 협조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설명하라. 단, 아이가 위협적으로 느껴지 않게 하라.
- ▶ 아이에게 주의와 상기시킬 수 있는 신호를 줘라.
- ▶ 배우자를 도와라. 그리고 배우자가 당신을 돕게 하라.
- ▶ 아이와 함께 문제 해결을 하도록 힘써라.

7. 칭찬하기

- ▶ 행동과 관련하여 칭찬을 하라.
- ▶ 즉각 칭찬하라.
- ▶ 아이가 자신이 뭘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완성된 문장으로 칭찬하라.
- ▶ 한정하거나 비꼬지 말고 긍정적인 칭찬을 하라.
- ▶ 말만이 아니라 미소와 눈 마주치기, 열정을 담아 칭찬하라.
- ▶ 말로 칭찬하는 동시에 쓰다듬고 안아주어라.
- ▶ 아이가 잘하고 있을 때를 포착하라. 완벽한 행동을 했을 때 쓰려고 칭찬을 저축해두지 말아라.
- ▶ 긍정적인 행동을 볼 때마다 지속적으로 칭찬하라.
- ▶ 남들 앞에서 칭찬하라.
- ▶ 다루기 힘든 아이일수록 더 칭찬하라.
- ▶ 적절한 행동에 대해 어떤 칭찬을 받는가를 아이에게 보여줘라.
- ▶ 잘한 행동에 대해 상을 줘라. 예를 들어 가족외출 장소에 대한 선택권을 준다.
- ▶ 아이의 나쁜 행동을 그만두게 한다고 ‘뇌물’로 유혹하지 마라. 아이를 망친다.

8. 종결

★ 다음 2주 동안 아이의 못마땅한 행동에 부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아이의 마음에 드는 행동에 주목하고 칭찬을 아끼지 말아 주세요.

3-4 성차별 금지 및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내규

2002년 2월 8일 제정/ 2006년 3월 11일 개정

인권운동사랑방

전문

- 인권운동사랑방 상임·돈음·자원활동가(아래 모든 활동가)는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지향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과 폭력을 거부한다. 특히 성(sex, gender)에 기반한 육체·정신·환경적 폭력 행위를 반대하며, 우리 안에서 사회적으로 내면화된 차별의식을 혁파하고, 전통적으로 남성과 여성에게 고정화된 성 역할을 탈피한다.
- 성에 기반한 차별 및 폭력 행위 금지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활동가는 성에 기반한 차별 및 폭력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또한 모든 활동가는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올바른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모든 활동가는 위 모든 것들을 머리·마음·몸으로 체화하면서, 각고의 노력과 항상 긴장하는 자세로 아래의 내규를 지킨다.

제1조 정의

성폭력은 성에 기반한 모든 육체·정신·환경적 침해 및 차별행위를 말한다.

제2조 적용범위

내규는 모든 활동가에게 적용되며, 인권운동사랑방 외부에서 성폭력 사건(아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나 피해자가 모든 활동가 중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3조 사건의 신고 및 성립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 및 그 사람의 대리인이나 목격자 등 제3자가 피해사실을 성폭력반대위원회(아래 위원회)에 신고하면, 위원회는 사건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1. 성폭력 사건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위원회는 신고 사실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2. 제3자는 반드시 피해자로 여겨지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사건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신고한 사람은 위원 중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위원 이외의 상임·돈음활동가를 임시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피해자의 존중

1.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은 가장 존중되고, 피해자의 이익은 최우선으로 고려된다.
2. 피해자는 사건을 공개적으로 처리할지, 비공개적으로 처리할지 결정할 수 있다.
3. 피해자는 아래의 권리를 가진다.
 - ① 자신의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을 권리
 - ② 가해자에 대한 입방금지를 즉각 요구할 권리
 - ③ 위원회의 위원 중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위원 이외의 상임·돈음활동가를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권리
 - ④ 자신의 사건에 한하여 임시위원으로 참여할 권리
 - ⑤ 불필요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
 - ⑥ 사건해결의 전 과정을 알 권리
 - ⑦ 특별휴가 등을 요구할 권리

제5조 사건의 진행

1. 위원회는 피해자와 협의하여 사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을 배제하거나 위촉하여 위원회를 재구성할 수 있다.
2. 비공개 시, 위원회에 의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만 이루어진다.
3. 공개 시, 위원회는 사건에 대한 진상과 징계결과 및 징계수위에 대한 판단근거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3.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사건 공개 시에만 이루어지며, 징계의 수위는 위원회가 판단한다.

제6조 사건의 종결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의 인권회복 등 사후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피해자와 위원회는 사건의 종결을 결정한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1. 위원회는 상임·돈움활동가 중 3인으로 구성된다.
2. 위원은 상시직으로, 인권운동사랑방 총회에서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3.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4.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5. 위원회는 사건에 대해 접수와 종결의 전 과정을 집행한다.
6. 위원회는 사건 모두를 기록하고 보고서로 작성할 의무가 있다.
7. 위원회는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제8조 징계

1. 징계의 종류는 공개사과, 경고, 노동봉사, 3개월 이하의 정직, 제명, 외부공개가 있다.
2. 모든 가해자는 위원회가 지시하는 내부 또는 외부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3. 동일한 가해자가 또 다시 성폭력을 저질렀을 경우, 위원회는 이전 징계보다 엄하게 징계를 내려야 한다.

제9조 2차 가해

1. 성폭력 가해자에 동조하는 발언, 행위,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 강압 등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받아 위원회에 신고하면, 그 사건은 별도의 사건으로 다룬다.
2. 피해자가 원하여 사건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는 중 이를 공개하는 모든 활동가의 경우도 제1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 모든 활동가의 의무

1. 모든 활동가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건 해결의 과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2. 모든 활동가는 공개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징계결과에 대해 공유할 의무가 있다.
3. 모든 활동가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상생활에서 성과 관련된 언행을 각별히 유의한다.

제11조 공동해결

모든 활동가가 관련되어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 위원회는 본 내규에 의거하여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단,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타 단체의 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제12조 사건의 예방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 평등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연2회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위원회에서 담당한다.



3-5 그밖에 '함께 읽어요'

<박박머리 엄마>/ 박관희 글 · 박해남 그림/ 낮은산/ 초5~

★ 정만이 아버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병이 들어 일자리를 잃고, 마침내 돌아가셨어요.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정만이 엄마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해 파업 투쟁에 나서지요.

<팽이부리말 아이들>/ 김중미 글 · 송진현 그림/ 창비/ 초6~

★ 인천의 가난한 동네 '팽이부리말'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쌍둥이 숙자와 숙희, 동수와 동준이 형제들이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며 끈기있게 살아가는 모습이 마음을 울립니다.

<보름달 학교와 비오의 마법 깃털>/ 이기규 글 · 최승형 그림/ 지식나이트/ 초5~

★ 우슬이는 나그네 비둘기 비오를 만나 '보름달 학교'로 모험을 떠납니다. 그 곳은 보통 학교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는 여행으로 안내하는 곳이지요. 세상의 숨겨진 모습들, 학대받고 착취당하는 가난한 나라 어린이들의 인권과 환경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난 두렵지 않아요>/ 프란체스코 다다모 글 · 노희성 그림/ 중앙 M&B/ 청소년

★ 파키스탄의 어린이 노동자 이크발의 실재 이야기예요. 이크발은 집안의 빚 때문에 네 살 때 카펫공장에 팔려가 노예로 살았지만, 그 삶에 굴복하지 않았지요. 감옥 같은 공장에서 탈출해, 어른이 노동자들의 실태를 알리고, 이권한 착취구조를 허물기 위해 싸웁니다.

<사라, 버스를 타다>/ 윌리엄 밀러 글 · 존 워드 그림/ 사계절/ 초4~

★ 1950년대 미국에서는, 흑인은 반드시 버스 뒤쪽에만 타야 했어요. 버스 앞쪽에 앉으려 한 흑인 소녀 사라는 어느 날 버스 앞쪽에 앉았고, 벼를 어겼다고 체포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이 벌어지고, 마침내 부당한 법은 바뀌고 말지요.

<똑딱딱 인권짓기>/ 인권운동사랑방 글 · 윤정주 그림/ 야간비행/ 초4~

★ 여러 가지 인권 문제들을 재미있는 만화와 그림, 생각해 보는 활동들로 꾸몄어요. '같이면서도 달라요', '함께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요', '나만의 세상을 가질 수 있어요', '위 아래보다 어깨동무가 좋아요' 등 모두 열세 쪽지로 구성되어 차별이나 민주주의, 사생활, 평등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섬시일반>/ 박재동 외 글 · 그림(만화)/ 창비/ 청소년

★ 열 명의 만화가들이 섬시일반 하여 한 권으로 펴낸 시사만화집입니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문제를 다루며, 이를 만들어 내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지적합니다.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배경내 글/ 우리교육/ 교사

★ 인륜 보편의 가치인 '인권'의 프리즘으로 학교 사회를 들여다봅니다. 학교는, 임시문화와 권위주의, 일상화한 검열문화, 재생산 되는 폭력, 교사의 권위 실추와 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지요. 글쓴이는 "학교를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재조각하지 않는 한 아이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배우지 못하고, 우리 사회도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